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

제94회 전국체육대회
2013.10.18~10.24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인천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38 / 2013.10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테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Cover Story



인천의 이름은 미추홀(彌鄒忽)로 출발하여 매소홀(賈召忽), 소성현(邵城縣), 경원군(慶源郡) 그리고 조선 태종 13년(1413) 10월 15일에 이르러 인천군으로 불려졌다. 올해는 '인천(仁川)'이란 이름을 얻은 지 600년 되는 해다.



10



22



26



30



52

CONTENTS

04 소통과 화합

06

08

10

14

16

18

체전개요

경기일정

신설경기장 활용

전국체전 유망주

인천 전국체전의 발자취

인천명소

22 겉자, 이 가을 인천 둘레길 5코스

26 즐기자, 이 가을 캠핑

30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한식당 '맛좋은집 소머리국밥'

34 아름다운 사람 류은규 사진가

36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산업화시대의 인천

38 문화뉴스 울리아 피셔&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공연 외

40 시정뉴스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립니다 외

44 의정뉴스 강화경기장 현장방문 외

46 생활정보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외

50 이달의 서평 일하는 즐거움 나이들의 행복 외

51 인천사는 이야기 송도에 크루즈가 왔어요 외

52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차이나타운

58 모닝 커피 한잔 장현식 인천기상대장

06 인천의 힘 ‘스포츠’로 알린다

10월 전 국민의 이목이 인천으로 쏠린다. 전 국민이 보고 즐기는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스포츠 축제가 인천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 곳곳의 65개 경기장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22 걸어야 비로소 ‘인천’이 보인다

10월은 아웃도어의 계절이다. 가을의 바람과 햇빛은 사람들을 밖으로 밖으로 부른다. 걷기가 대세인 요즘, 싱그러운 계절을 벗삼아 인천둘레길을 걸어보자. 둘레길은 등산처럼 정상에 올라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지만 천천히 여유있게 사색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을 수 있기에 ‘느림의 미학’이라 부른다.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3년 10월 2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청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na1488 /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섭·정정호·홍승훈·양진수(자유사진가), 심영보·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인쇄 웨스트코 T. 032-423-1988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social network
twitter
me2day blog
facebook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세요.

관광자원 풍부한 보물 도시

독자 서상일(서구 가정로)



서상일님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부지런한 여성입니다. 여성인력센터에서 '텃밭강사 양성' 교육을 마치고, 올 초부터 인하대학교에서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을 일깨우며 배우고 실천하는 삶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인천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85년부터 살아왔다. 서구에서 오래 살았는데, 정이 들어서 이제 떠날래야 떠날 수 없다. 서구는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서 좋다. 또 공장지대가 있지만 철마산이 곁에 있어 공기가 좋고, 특히 내가 사는 가좌동 구도심은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 참 살기 좋다.

〈굿모닝인천〉 좋은 이유 인천에 살면서도 모르고 스쳐 지나던 것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어 기쁘다. 책을 읽으면, 인천을 자세히 알고 마음에 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인천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해주어서 고맙다.

인천에 바라는 것 인천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도시다. 천년의 땅 강화도 만해도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가 많은데, 찾는 이가 많지 않아 아쉽다. 인천의 관광자원을 잘 가꾸고 개발해, 많은 사람이 인천을 찾았으면 좋겠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타 지역에서 전국체육대회에 가려고 합니다. 경기장 가운데 송림체육관은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더군요. 대안이 있나요?

전국체전 운영 담당자(458-7254)에게 확인한 결과, 관객을 위한 별도의 교통편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체전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장까지 이용 가능한 교통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버스터미널에 갔는데 주변까지 역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평소 이런 냄새가 없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확인해 주세요.

먼저 인천터미널 악취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점 대신 사과드립니다. 남구청 악취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당일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학 IC에서 송도 방향으로 진출하니 문학터널이 나오네요.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걸 가까이 가서야 알았습니다. 미리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문학터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국 도로과(440-3774)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문학터널은 민자터널이므로 해당업체와 협의하여,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구에 있는 우리 할머니 댁 앞 전봇대가 너무 너절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반갑습니다. 전주 관련 업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123)에 연락한 결과, 정확한 주소지나 전주 번호를 확인하면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SNS 서포터즈 활동을, 1일 3회 이상 SNS(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에 모두 다 해야 하나요?

시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SNS 담당자(440-3042)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3건을 게시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트위터에 3건을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수구 송도신도시 동춘동 쪽에 도서관이 생길 계획은 없나요?

청학도서관 담당자(749-8256)에게 확인한 결과, 동춘1구역 재개발구역에 도서관 기부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재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관 일정은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

10월 18일~24일

인천의 힘

‘스포츠’로 알린다

인천의 발전상, 높아진 위상 알리는 계기

이번 제94회 전국체육대회는 전국에 인천의 발전상과 높아진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다. GCF 사무국 유치로 글로벌 녹색환경 수도로 발돋움하고, 제2의 개항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인천을 보여준다. 또 국제 수준의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선진국형 체육 활성화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래서 이번 대회의 슬로건도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로 정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앞서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사전 점검하고 준비하는 성격도 있다. 이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지은 신설경기장을 활용한다. 강화, 문학, 송림, 열우물, 계양, 남동경기장과 체육관은 이번 체전에서 선수들을 맞는다. 선수들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신설경기장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치게 된다.

인천 전국체전은 선수단 임원진을 합해 총 3만여 명이 참여해 65개 경기장에서 46개 종목을 버라이어티하게 펼친다.

우리시는 재정난이 있는 만큼 이번 체전을 알뜰하게 치른다는 기조를 세웠다. 특히 그동안 재정난과 경기불황 등으로 움추려 있던 인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체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개·폐회식은 GCF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 할 수 있는 ‘글로벌녹색 환경수도 인천’이란 콘셉트로 기획했다. 개회식은 ‘두근거리는 인천’을 주제로 사전행사 ‘고동(鼓動)- 심장이 뛰다’, 식전행사 ‘격동(激動)- 천지가 울리다’, 공식행사 ‘생동(생동)-생명이 꽃피다’, 식후행사 ‘역동- 환희가 숨쉬다’로 정하고 희망의 포문을 연다.

참여·융합·녹색체전이 목표

우리시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안전하고 편안한 숙소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을 방문하는 인원은 12만여 명으로 이중 17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은 3만여 명, 선수단 가족과 관람객들은 9만여 명으로 추산한다. 해외동포 선수단에게는 종목별로 경기장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숙박요금이 저렴하고 깨끗한 연수원 및 기숙사 시설을 배정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체전을 전 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참여체전’, 문화예술 공연과 스포츠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융합체전’, 선진 문화예술과 환경도시 인천을 알리는 ‘녹색체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일정



종 목	종 별	10.18(금)	10.19(토)	10.20(일)	10.21(월)	10.22(화)	10.23(수)	10.24(목)	경 기 장
육상	트랙/필드			○	○	○	○		문학경기장
	마 라 톤				○				
	하프/단축					○	○		시내일원(일정변경가능)
	경보					○			
수영	경영		○	○	○	○	○	○	문학박태환수영장
	수구		○	○	○	○	○	○	
	다이빙		○	○	○				
	싱크로					○			
축구	남고부	○	○	○		○		○(문학보조경기장)	송도LNG스포츠타운축구장(A)
	여고부	○	○	○		○		○(문학보조경기장)	남동그린공원축구장
	남대부	○	○	○	○	○		○(문학주경기장)	인천대학교축구장
	남일부	○	○		○	○		○(문학주경기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여대부		○		○		○(문학보조경기장)		강화길상운동장
	여일부		○		○		○(문학보조경기장)		중구국민체육센터
	해외동포		○	○		○			동구구민운동장
야구	고등부		○	○	○	○	○	○	송도LNG스포츠타운 야구장
	일반부		○	○	○	○	○	○	문학야구장
테니스	전종별	○	○	○	○	○	○		열우물테니스경기장
	해외동포	○	○	○	○	○	○		
정구	전종별		○	○	○	○	○		가좌테니스장
농구	남자부		○	○	○	○	○	○	삼산체육관
	여자부		○	○	○	○	○	○	삼산보조체육관
배구	남고부		○	○	○	○	○		인하대학교체육관(변경가능)
	여고부,여일반		○	○	○	○	○		신흥초등학교(변경가능)
	남대부,남일반		○	○	○	○	○		송림체육관(변경가능)
탁구	전종별		○	○	○	○	○		문일여고체육관
	해외동포			○	○	○			
핸드볼	전종별	○	○	○	○	○	○	○	계양아시아드경기장
	고등부		○		○		○	○	
럭비	대학/일반	○		○		○		○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사이클	트랙	○	○	○	○				계양벨로드롬
	도로					○	○	○	강화일주도로
	MTB			○					강화MTB장
복싱	전종별		○	○	○	○	○	○	도원체육관
레슬링	그레코		○	○	○				뉴욕주립대체육관
	자유형					○	○	○	
	여자자유형			○	○	○			
역도	전종별	○	○	○	○	○	○		주안초등학교체육관
씨름	전종별		○	○	○	○			연수학생체육관
유도	전종별		○	○	○	○	○		동부학생체육관

종 목	종 별	10.18(금)	10.19(토)	10.20(일)	10.21(월)	10.22(화)	10.23(수)	10.24(목)	경 기 장
검도	전종별		○	○	○				인천고체육관
궁도	일반부		○	○	○				청룡정
양궁	전종별		○	○	○	○	○		계양아시아드경기장
사격	전종별		○	○	○	○	○		충북종합사격장
승마	일반부		○	○					상주국세승마장
체조	기계체조				○	○	○		남동체육관
	리듬체조			○					인천대학교체육관
	에어로빅		○	○					강화학생체육관
하키	전종별	○	○	○	○	○	○	○	강원도 동해시 웰빙레포츠타운(예정) 강원도 동해시 목호여자중학교(예정)
펜싱	전종별		○	○	○	○	○		동인천여중체육관
태권도	전종별		○	○	○	○	○		강화고인돌체육관
조정	전종별			○	○	○			용인조정경기장
볼링	고등부		○	○	○	○			동남볼링장
	대학부		○	○	○	○			송도비치볼링장
	일반부		○	○	○	○	○		이삭볼링장
	해외동포		○	○	○	○	○		영남볼링장
롤러	전종별		○	○	○				시립동춘롤러경기장
요트	전종별		○	○	○	○	○		왕산요트장
근대5종	펜싱		○	○	○	○			송림초등학교체육관
	수영		○	○	○	○			도원수영장
	복합		○	○	○	○			인천체고운동장
	승마						○		성남 국군체육부대 승마장
카누	전종별		○	○	○				미사리 경기장
골프	전종별				○	○	○	○	드림파크골프장
	해외동포					○	○	○	
보디빌딩	전종별		○	○					연수구청 대강당
우슈쿵푸	전종별		○	○	○				송원초등학교체육관
핀수영	전종별		○	○					도원수영장
세팍타크로	전종별		○	○	○				서운고등학교체육관
소프트볼	여자부		○	○	○	○	○		송도LNG스포츠타운 제4지구 야구장
트라이애슬론	일반부				○				인천송도중앙공원
스쿼시	전종별		○	○	○	○			열우물스쿼시경기장
	해외동포			○					
당구	일반부					○	○	○	인재개발원체육관
산악	남일부			○					문학경기장암벽장
댄스스포츠	전종별		○	○					경인교육대학교체육관
택견(시범)	전종별		○	○					산곡중학교체육관
수상스키(시범)			○	○					영종경정호련장

❖ 사전경기

종목	종별	9.29(일)	9.30(월)	10.1(화)	10.2(수)	10.3(목)	10.4(금)	경기장
배드민턴	전종별	○	○	○	○	○	○	도원체육관

※ 중앙경기단체 및 개최지의 사정에 따라 경기일정 및 경기장 변경 가능

문의 : 458-7323

세련미 갖춘 첨단시설로

‘경기력’ 높인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지은 신설경기장을 활용한다. 이로써 인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활용하는 경기장은 강화, 문학, 송림, 열우물, 계양, 남동경기장과 체육관을 합해 9곳이다. 첨단시설을 갖춘 신설경기장에서 선수들을 맞음에 따라 제94회 전국체육대회는 훨씬 높은 수준과 격을 갖추게 됐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양진수 자유사진가

문학박태환수영장(수영)

수영경기장인 문학박태환수영장은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수영 선수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역동적인 인천의 비전을 디자인에 녹여냈다. 문학월드컵경기장 앞에 세우는 이 수영장은 대지의 형상 및 기존 문학경기장 시설과의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열린 녹지공간이 문학경기장에서 선학경기장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종목은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다. 수영장 실내에는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영풀(50m×10레인), 보조풀(50m×6레인), 다이빙풀(30m×25m),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갖췄다. 또 실외는 갤러리, 이벤트, 물빛마당으로 꾸며 경기장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관람석은 3천석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었다. 수영경기장은 경기와 복지를 겸한 경기장으로 건설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꾀했고 건설비용을 최소화했다.





송림체육관(배구)



송림체육관의 디자인 기본 콘셉트는 ‘빛과 녹음’이다. 체육관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송림동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 빛을 통한 역동적인 소통감을 살렸다. 체육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이고 관람석은 총 5천9석으로 국제규격에 맞췄다. 송림체육관은 배구경기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둥이 없다. 특수한 건설공법을 활용, 경기장의 특징을 살렸다. 이곳은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배구경기가 열린다. 체육관은 친환경 녹색에너지인 지열시스템을 설치, 지열로 체육관의 난방과 전등의 일부를 사용한다. 체육관의 주요시설로는 주경기장, 연습경기장, 피트니스센터, 연회장을 갖추고, 경기가 없을 땐 생활체육시설로 쓴다.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테니스, 스쿼시)



열우물경기장에선 테니스와 스쿼시 경기가 치러진다. 경기장은 주변 녹지로부터 흘러내려온 이슬과 이슬을 통해 비춰보는 테니스 라켓을 형상화했다. 약 20m 경사 및 남북방향으로 45도가 틀어져 있는 대지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옥외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경기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고 관람석은 7천77석이다. 경기장 명칭인 열우물은 십정동의 옛 이름이다. 열우물경기장은 경기가 끝난 뒤엔 다목적 공연장, 체육타운, 상설공연장, 전시장, 오토캠핑장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쓰인다.

계양아시아드양궁장, 계양체육관(양궁, 배드민턴, 공수도)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선 양궁경기가, 계양체육관에선 배드민턴, 공수도 경기가 열린다. 계양체육관의 조형적 이미지는 서툰목을 튕겨내는 라켓의 긴장감을 표현했고, 계양아시아드양궁장은 팽팽히 당겨진 활의 이미지를 담았다. 경기장은 주변의 하천과 연결, 도시와 자연이 하나되는 공원 속에 자리해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선 핸드볼과 양궁경기가 펼쳐진다. 총 사업비 1천961억원을 투입한 이들 경기장은 배드민턴이 4천283석, 양궁 1천181석이다. 경기장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지었다. 시는 경기장 곳곳에 보조 운동시설을 배치하여 생활체육시설로도 활용한다. 경기장은 계양구 서운동 111번지 일원이다.



남동아시아드리듬체조경기장, 남동체육관(리듬, 체조)



남동경기장은 수공간 및 녹지공간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며 자연과 조화된 형태로 그 모습을 뽐낸다. 리듬경기장은 리듬선수들의 강한 근육을 형상화했고, 체육관은 체조 리본의 여성적이고 연속적인 곡선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늘로 솟구치는 링을 표현했다. 리듬과 체조가 열리는 경기장의 규모는 연면적 4만2천356㎡에 건축비만 2천212억 원을 투입했다. 경기장은 8천800명이 동시에 입장하는 체조경기장과 5천여 석의 리듬경기장을 갖추고 아시아경기대회 전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먼저 선수들을 맞는다. 전국체전에서도 리듬, 체조 경기가 열린다. 경기장은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후 체육공원, 판매시설, 공연장 등으로 활용한다.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강화고인돌체육관(BMX, 태권도, 탁구)



스포츠의 불모지였던 강화군에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태권도 및 자전거(BMX) 경기장이 완공됐다. 강화도에 새롭게 생긴 경기장과 체육관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은 삼성단의 축조방식인 상방하원의 형상을 모티브로 삼았다. 디자인은 태권도의 정신을 뜻하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의미를 담았다. 자전거의 모습을 본뜬 BMX경기장은 속도감과 역동성을 표현하였으며 강화의 새로운 자전거타운이 된다. 강화고인돌체육관은 태권도, 우수 경기장이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선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태권도 경기가 열린다. 체육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이고, BMX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꾸몄다.

〈그 밖의 신설 경기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경기장은 춤, 빛의 자취, 바람의 물결을 인천의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대지면적 63만1천975㎡에 관람석 6만1천74석이 들어선다.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 등이 열린다. 공정률 9월기준 70.56%. 준공은 2014년 6월.

연희크리켓경기장

주경기장 부지 내 연희크리켓경기장을 조성한다. 현재 공정률은 9월 현재 70.56%다. 지하 2층에 관람석은 2천353석 규모다. 경기장 완공은 2014년 6월 예정이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국제빙상경기장은 선학경기장 부지 내에 들어선다. 아이스링크 2면, 컬링연습장 2면, 관람석 3천311석을 갖춘다. 경기장은 아시아경기대회 중 핸드볼경기장으로 활용한다.

선학체육관

체육관은 복싱경기장으로 쓰인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관람석은 2천여 석이다.

선학하키경기장

문학산과 승기천의 흐름을 대지 내에 조화시킨 배치가 특징. 실외인 하키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관람석은 8천115석이다.

옥련국제사격장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하고 지상 4층 규모다. 관람석은 1천337석이고 2014년 6월 준공한다.



세계까지 환히 빛낼,

전국체전 스타스타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드디어 오른다. 우리시는 이번 체전을 우수한 대회 운영시스템과 시설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는 2014년에 열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이끌 것이다.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세계까지 환히 빛낼 스포츠 축제의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대한체육회, 인천시체육회



인천, 종합 2위 목표

우리시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 선수 1천314명과 임원 185명 등 모두 1천499명의 선수단을 출전시킬 예정이다. 시와 인천시체육회는 그동안 전국체전에 대비해 타 시도에서 국가대표급 우수한 선수를 지속적으로 영입해 경기력을 향상시켰다. 대한민국 수영계의 간판스타 박태환과 우리나라 최초의 여배우 복서인 이시영을 영입하는 등 스타 마케팅도 강화해왔다. 또 전국체전 프레대회 형식의 대회를 잇따라 개최해 경기운영 능력을 키우고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켰다.

우리시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0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100개, 종합득점 6만점을 얻어 종합 2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대회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들을 만나보자.

실력과 대중성 갖춘 스타들

인천시 선수단 가운데 마린보이 박태환과 여배우 복서 이시영 등 스포츠 스타들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메달리스트인 박태환은 지난 제89회 전국체전 이후 5년 만에 전국체전에 출전한다. 그는 이번 대회에는 자유형 200m, 400m, 1500m, 계영 400m, 800m 등에 출전하며 5관왕을 내다보고 있다. 복싱 여자 일반부의 이시영은 여배우이면서도 복싱선수로 활약하는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번 체전에서 기존 48kg급에서 51kg급(플라이급)으로 체급을 올려 출전한다. 동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로, 이를 발판 삼아 아시아경기대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014 AG에도 활약 기대

이와 함께 각 종목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한 인천 소속 선수들이 많다. 라이트플라이급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신종훈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이,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입상이 점쳐진다. 김가영은 2011년 WPBA 투어 챔피언십 우승, 2012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등 전적이 화려한 세계적인 당구스타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여자 포켓 9볼, 10볼에 출전해 2관왕에 오르는 것이 목표다. 충남 대표로 출전하는 라이벌 차유람과의 대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멀리뛰기 한국 최고기록 보유자인 육상의 정순옥, 전국체전 포환던지기 5연패를 달성한 육상의 황인성, 전국체전 안마 종목에서 3연패를 기록한 체조의 하창주 등이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우리시 소속은 아니지만 2012년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출전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사격의 진종오(부산)·김장미(부산), 양궁의 오진혁(제주)·기보배(광주), 유도의 김재범(제주), 체조의 양학선(광주), 펜싱의 구본길(전북)·김정환(전북)·김지연(전북)·신아람(충남) 등이 이번 대회에서 열전을 벌인다.



박태환



신종훈



김가영



이시영



정순옥

송의벌 넘어 문학산에

성화 타오른다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의 횃수는 제94회. 그동안 우리시는 45회(64년), 59회(78년), 64회(83년), 80회(99년) 등 네 차례 체전을 치렀다. 모두 인천사람의 추억 공간 '그라운드' 송의구장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2002 월드컵 4강의 신화가 움튼 문학경기장에 처음으로 성화가 활활 타오른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제공 인천역사자료관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가 창설되었다. 첫 행사로 그해 11월에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제1회 전 조선야구대회가 열렸다. 이를 전국체전의 기원으로 삼고 이 대회를 기점으로 횃수를 계산하고 있다. 1934년 조선체육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전 조선종합경기대회부터 비로소 종합대회의 성격을 띠었다. 1948년 제29회 대회부터 명칭이 '전국체육대회'로 바뀌면서 오늘날 같은 시·도 대항제로 바뀌었다.

45회(1964.9.3-9.8) 대회 인천 송의구장에 처음으로 성화가 불타올랐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雨)체전'으로 기억된다. 그해 열리는 18회 도쿄올림픽 때문에 예년보다 한 달 빠른 9월 초에 개최됨으로써 여름철 비구름이 완전히 거치지 않았다. 대회 내내 거의 비가 내려 진흙탕에

서 경기를 치렀다. 급기야 야구, 핸드볼, 연식정구, 테니스 결승전은 당일 폭우로 인해 두 팀을 공동 우승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참가 선수들은 입장식에만 모습을 보이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록들이 풍성했다.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당시로서는 생소한 민박가정을 모집했다. 1천200여 호의 가정이 참여해 숙박 문제를 해결했다. 민박 가정에는 선수단을 위해 쌀을 방출미 가격으로 특별배급했으며 각 협동조합을 통해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다.

59회(1978.10.12-10.17) 대회 크고 작은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모범체전'으로 기록된다. 정부수립 30주년을 기념한 59회 체전은 당시 많은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취업하려 간 세태를 반영하듯 처음으로 재(在)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단(임원8, 선수18)이 참가했다. 성화 최종 주자는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인천의 아들 장창선이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여주듯 매스게임은 남녀

고등학생 1천800여 명이 펼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대부분 안보 관련 매스게임이었다. 체전을 위해 송의종합경기장의 스탠드를 대폭 증축했으며 전광 스코어보드도 새로 설치했다. 특히 운동장 주변이 일명 '전도관 동네'인 송의동 109번지 일대 허름한 집들은 거의 모두 2층집으로 '살짝' 개축했다.

64회(1983.10.6-10.11) 대회 컴퓨터가 처음으로 경기장에 선보인 '과학체전'으로 불린다.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당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은 올림픽용 IBM 컴퓨터 판매를 취소하기로 결정해 양국간 다른 차원의 갈등과 긴장감이 돌았다. 이처럼 컴퓨터는 80년대 들어 경기 진행, 결과 등 스포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도 86 아시아경기대회,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카이스트를 주축으로 이 대회부터 모든 경기진행에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사이클 전용경기장 벨로드롬을 선보였고 가스 성화대를 처음 설치했다. 개항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열린 대회였지만 대회 중반에 터진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선수단 모두 검은 리본을 달았으며 폐회식은 전 국민의 울분을 토해낸 규탄장이 돼 버렸다.

80회(1999.10.11-10.17) 대회 '20세기 마지막' 체전이였다. 당시 송도를 중심으로 한 트라이포트 건설을 추진 중이었던 우리시는 대회 슬로건을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로 정했다. 마스코트 '미래로'는 21세기 인천의 상징인 첨단과학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로봇을 닮은 소년의 이미지를 삼았다. 그러나 체전 유치 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려던 문학경기장의 완공이 지연됨으로써 우리시는 96년 한때 반납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체전으로 보기 드물게 세계기록 1개, 아시아기록 5개, 한국기록 36개가 쏟아졌다.



놓쳐선 안 되는,

인천의 매력 10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인천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14년에 열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아시아, 세계인의 이목까지 인천으로 집중될 것이다. 인천에 왔다면 결코 놓쳐선 안 된다. 대회를 찾은 손님들에게 '강추'하는 인천의 매력 포인트 열 가지.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1 인천개항장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도시다. 반듯하고 현대적인 도시 이면에는 우리나라 개화기와 근대화 산업발전을 이끌어 온 역사가 묵묵히 배어 있다.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중구청 앞 길에는 일본식 거리가 조성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읊고 있다. 근대건축전시관으로 개조한 일본 제1은행, 인천개항박물관으로 탈바꿈한 일본 제1은행, 제58은행 등 당시 금융시설과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터 등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2 차이나타운

인천역 맞은 편, 중구 북성동 일대. 차이나타운을 빼고 인천을 구경했다고 말하면 곤란하다. 이곳에는 130여 년 전 고향을 떠나 먼 이국땅에 뿌리 내려 온 중국인들의 삶과 역사가 살아 숨 쉰다. 짜장면의 역사가 시작된 요리집 공화춘을 개조해 지은 짜장면박물관,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중국 절 화염사, 우리

나라 최초의 화교학교인 중산학교 등이 이곳의 명소다. 물론 중국하면 짜장면이 빠질 수 없다. 차이나타운에는 화교 2~3세대들이 나름의 비법을 이어가고 있는 요리집들이 즐비하다.

3 배다리

배다리는 사람냄새 종이냄새 흠씬 배인 동네다. 지금은 스페이스 빔이라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옛 인천양조장, 오래된 의상실, 문구점 등 곳곳에 서민들의 삶이 끈적하게 녹아 있다.

최근에는 창영초등학교 주변 벽화거리, 한점갤러리 등의 명소가 배다리에 새

로운 표정을 입히고 있다. 특히 이곳은 1950~60년대 헌책방 거리로 유명했다. 아벨서점을 비롯한 오래된 서점엔, 세월의 곱절이 자욱이 쌓인 책들이 마음 따뜻한 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가까이 우리나라 유일의 달동네 박물관인 수도국산박물관이 있다.

4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서울에서 김포, 인천을 지나 서해로 흘러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뱃길 경인아라뱃길. 이곳에는 아름다운 마을을 뜻하는 수향 8경이 빛나고 있다. 45미터 높이의 산 협곡에 걸린 전망데크 아라마루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UFO 같다. 검재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재현한 국내 최대의 인공폭포인 아라폭포도 시선을 끈다. 아라김포여객터미널에선 바다 건너 섬으로 가는 여객선이 닻을 올린다. 갑문을 지나 강에서 바다로 나아갈 때의 기분은 이루 설명할 수 없다. 인천터미널 인근은 광화문의 정서방향인 정서진이다. 날이 갠기울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 그곳에 내려앉는다.





5 송도 미래길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미래도시의 꿈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송도 미래길은 컴팩트스마트시티, 트라이볼, 오션스코프, 커널워크, 송도센트럴파크, 송도컨벤시아로 이어진다. 바다가 한가운데 가로지르는 공원, 감청빛 하늘과 바다 사이의 인천대교 전망대 오션스코프, 오색찬란하게 빛나는 세 개의 주발 트라이볼이 가슴을 뛰게 한다. 하늘 높이 솟은 동북아트레이드타워, GCF 사무국의 보금자리가 될 G-Tower도 마음을 사로잡는다. 길 따라 걷는 시간은 단 두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현재부터 먼 미래까지 넘나든다.

6 인천대교 그리고 섬

인천대교는 진저리쳐질 정도로 경이롭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하나로 잇는 21.38km의 다리는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사장교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라는 말이 실로 느껴진다. 12.3km에 이르는 바다구간을 지나면 남산 높이와 비슷한 238.5m의 주탑과 마주한다. 인천대교의 넘치는 위용이 가슴에 강렬한 느낌표를 찍는다. 인천대교를 건너 영종·용유도로 가면 마시안·용유·선녀바위·을왕리·왕산 해변 등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바닷가에 다다른다.



6



4



5



7

7 포구

인천은 포구를 품은 바다의 도시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리는 사람들로 발 디들 틈 없는 소래포구. 작은 몸집으로 어찌 감당할까, 씹을 만큼 뽀뽀하게 자리 잡은 어물전에선 생선들이 싱싱하게 팔딱거린다. 오랜 명성을 이어 온 재래어시장과 새롭게 지은 건물형 종합어시장에서, 사시사철 싱싱한 회와 젓갈을 맛볼 수 있다. 1970년대 인천의 고기는 다 모이다시피한 동구 만석부두와 화수부두도 최근 수산물직매장이 열리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포구엔 갯 잡아 올린 생선들이 팔딱거리고 사람들의 흥정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8 인천연안부두

진한 갯내음과 뱃고동 소리. 두근두근, 여행의 설렘이 시작되는 곳. 인천연안부두에 가면 가까이 무의도부터 멀리 서

해5도까지 다다를 수 있다. 이곳에 가면 꼭 배를 타지 않더라도 가슴에 푸른 바다가 스며든다. 연안부두에서 이어지는 해양광장은 바닷가 쉼터로 잘 조성돼 있다. 계단과 의자가 놓여 있어 느긋하게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야외무대 공연과 음악분수를 즐길 수 있다. 4D영화관과 전망대 등을 갖춘 해양광장전망대도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걸음 더. 부두 끝 자락에 있는 바다 쉼터에 가면 호젓하게 ‘바다와 나’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9 월미도

한때 소풍을 갔다하면 월미도, 놀이기구를 탔다하면 디스코팡팡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월미도의 놀이기구는 뱅글뱅글 돌아가고 바닷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바다와 카페들을 끼고 쪽 뻗어 있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는 자유와 낭만이 흘러넘친다. 거리예술가의 열정과 연인의 풋풋한 사



8



10

량이 푸른 물결 따라 넘실거린다. 자연이 푸르게 우거진 월미산 정상에 올라 인천을 품에 안아도 좋다. 월미전망대에서면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 폭의 그림. 전망대는 어둠이 내리면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며 반짝거린다.

10 강화도

강화는 본섬을 비롯해 석모도, 불음도, 주문도 등의 아우섬을 거느리고 있다. 외포리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가까이 석모도부터 멀리 불음도와 주문도, 아차도까지 닿을 수 있다. 이 섬엔 천년바람이 유유히 흐른다. 단군의 정기가 서린 참성단을 비롯해 광성보, 덕진진, 초치진 등 한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또 읍내에는 고려궁지, 용흥궁, 강화산성, 성공회 강화성당 등 교과서 속 유적지가 긴긴 역사 이야기를 읊어낸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멋진숲길, 나비 군무...

걸으면 인천이 보여요

10월은 아웃도어의 계절이다. 가을의 바람과 햇빛은 사람들을 밖으로 밖으로 부른다. 걷기가 대세인 요즘, 싱그러운 계절을 벗삼아 인천둘레길을 걸어보자. 둘레길은 등산처럼 정상에 올라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고, 천천히 여유있게 사색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기에 '느림의 미학'이라 부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약사사에서 시작하는 가볍고 편안한 코스

인천둘레길 5코스는 간석3동에 위치한 약사사에서 시작해 향촌마을 뒷길, 만월산 터널입구, 만수산 도룡농마을을 지나 불로약수터, 수현부락길, 인천수목원을 거쳐 인천대공원 정문 앞에서 끝나는 여정이다. 길이 험하지 않고 평탄해서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다. 이번 둘레길 걷기엔 인천의제21 박상문(53) 상임회장, 권미정 팀장, 자원봉사자 황찬(63)씨, 정태명(62)씨가 동행했다.

약사사에서 시작한 코스는 산길로 접어들면서 나무가 무성한 숲길이 펼쳐진다. 만월산은 상수리나무가 많아 가을에 낙엽이 질 때면 숲이 예쁘고 걸을때 폭신함을 느낄 정도로 촉감이 좋다. 이 산을 만월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1932년 금강산 유정사에서 수행하

던 보월 한성언 스님이다. 스님은 '산은 비록 높지 않으나 사방으로 시야가 트였고, 산세는 팔을 넓게 벌려 마을을 감싸안은 형세'로 보았다. 보월 스님은 산 이름을 만월산이라 짓고 약사암이란 암자를 세웠다.

둘레길 안내자 황찬씨는 만월산 식생에 대한 만물박사다. 호랑나비가 알을 낳는다는 산초나무, 계피나무와 제피나무를 구별하는 방법, 잎을 만지면 구린내가 나는 누리장나무 등 만월산 식생을 설명하느라 바빴다. 그와 그냥 같이 걷기만해도 생태학습이 저절로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절로 실감한다. 둘레길 너머로 멀리 간석지구 아파트가 보이고 산길을 쭉 타고 가다보니 산 아래로 옛 부평농장의 슬레이트 지붕이 보인다. 오래전 시인 한하운 선생을 비롯한 한센병 환자들이 양계를 치던 장소였다. 여기서 나온 달걀들은 서울근교에 공급됐다. 지금은 공장들이 들어와 있다.

만수산은 도롱뇽과 나비들의 천국

둘레길을 걸은 지 1시간쯤 지나자 만월산과 만수산을 연결한 아치형의 연륙교에 도착했다. 연륙교가 생기기 전엔 만월산에서 만수산으로 가려면 차도를 건너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연륙교를 건너면 만수산이다. 만수산으로 들어가기 전 둘레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자연을 표현한 벽화를 만난다. 벽화는 5코스에서만 볼 수 있는 재밌는 볼거리다. 인천의제21 박흥렬 사무처장이 밑그림을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그림을 완성했다.

만수산의 또다른 이름은 금마산, 철마산, 광학산이다. 만수산은 그 자체가 생태학습장이다. 만삼이네도롱뇽마을은 도롱뇽들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산에서 내려오는 1급수의 청정수는 도롱뇽들이 알을 낳고 부화하기 좋은 장소다. 봄철 3~6월은 도롱뇽과 개구리 알이 계곡의 웅덩이마



인천둘레길 5코스

총길이 9.7km

소요시간 3시간 30분

코스 신명요양원(황단보도)~약사사 입구~인천사회복지관 뒷길~향촌마을 뒷길~주안산길(연결동로)~만월산터널 입구~도롱뇽마을~볼로약수터~만수산 정상~미추홀학교~수현부락길~인천수목원~장미원~호수광장

교통편 신명요양원 건너편(황단보도) 부평삼거리역 2번 출구 2, 30, 34, 45, 111-2, 780, 1400번 버스

Tip 인천의제21은 시민과 함께 둘레길을 걷는 행사를 열고 있다. 10월 26일엔 8코스, 11월 23일엔 9코스를 종주한다.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을 위해 단체 예약에 한해 둘레길 안내자를 배치한다. 자원봉사자 예약은 적어도 3일 전에 인천둘레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내자는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로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와 동네에 살고 있는 식물과 곤충을 알려준다. 인천둘레길 아카데미도 연다. 10월 15, 16, 17,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모집인원은 40명.

문의 : 070-4432-3733

다 가득해서 생태학습장으로 큰 역할을 한다. 봄에는 유치원생,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학습도 이뤄진다.

9월 만수산 계곡은 호랑나비들의 천국이다. 짝짓기로 바쁜 나비 무리가 보라색 방아꽃 주변을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진귀한 장면을 연출한다. 꽃과 나비들의 절묘한 앙상블이다. 만수산 계곡을 따라 오르다 보면 볼로약수터다. 말 그대로 한잔을 마시면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이 백년이 늘어난다는 볼로장생의 염원이 담겼다. 약수터를 지나 둘레길을 따라 걷다보면 옛 영풍광업소, 중국인 묘지의 흔적을 만난다. 중국인 묘지는 이미 인천가족공원으로 이장됐고, 영풍광업소도 80년대에 그 기능을 다하고 없어졌다.

만수산의 정상은 132m에 불과하다. 정상으로 부르기에 너무나 평범하고 낮다. 정상엔 금마산이라는 표시석이 자리한다. 산의 형세가 비단길 같기도 하고 말잔등 같기도 하여 붙여졌다.

3시간 여정, 동네길이 함께 어우러져 재미 듬뿍

만수산 정상은 탁 트여 전망이 좋다. 날씨가 좋을 때는 저 멀리 인천 대교도 가까이 있는 듯 한눈에 들어온다. 정상에서 내려와 신동아아파트 뒤로 나오면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다. 주택가 동네를 걸으며 이곳 사람들의 삶과 마주하며 인천의 속살을 본다. 담과 대문을 분꽃으로 가득 메운 집, 웅기종기 붙어있는 담 낮은 집들에 정감이 간다.

여기부터는 인천대공원으로 이어지며 수현부락으로 들어가는 코스다. 차도를 따라 가는 길은 살짝 지겨울 수도 있기에 '무너미고개'가 있는 수현부락쪽으로 걷기를 계속한다. 정태명(62) 둘레길 봉사자는 "만월산과 만수산은 바위산이다. 옛날에 삼남지방에서 곡식이 올라오면 인천의 서창에 모였다 서울로 올라갔는데 조선시대부터 무너미고개를 뚫어 뱃길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뒷이야기를 전한다.

농사를 짓는 수현부락을 걷노라면 호박, 가지, 고추 등 싱싱한 농산물을 볼 수 있고, 농민들이 직접 판매도 한다. 수현부락의 수려한 자연을 감상하면서 슬슬 걷다보니 어느새 인천대공원이다.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주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3시간 넘게 함께 걷는 둘레길 자원봉사자들과 기념사진 한방. 빌딩과 잘 정돈된 큰 도로 주위를 오가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았던 우리들. 둘레길은 인천을 알고, 느끼며 속살을 보는 여정이다.



가을 한가운데 눕다

한여름 휴가철의 요란한 캠핑이 아니다. 땀에 스치는 소슬한 바람, 텐트에 떨어지는 빗방울,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침이면 밀려오는 안개. 이곳에선 마음의 짐을 놓고 한 걸음 뒤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무언가를 위해 바쁘게 움직일 필요도 없다. 가을 한가운데 캠핑장에서 보내는 하룻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양진수 자유사진가



도시인의 로망, 빌딩숲 속 캠핑 송도국제도시 바비큐 캠핑장

캠핑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도시 한가운데, 생각지 못한 세상이 펼쳐진다. 송도국제도시 송도3교를 건너 커널워크 맞은편, 경제자유구역청은 공원으로 개발을 앞둔 이 일대를 도시인을 위한 초록빛 쉼터로 가꾸어 놓았다. 송도 캠핑장. 색색의 텐트가 모여 있고 주위엔 낮은 테이블과 의자가 웅기증기 놓여 있다. 사방을 둘러싼 빌딩숲이 졸지에 낯설게 느껴진다. 이곳은 바비큐장을 비롯해 족구장, 평상, 이동식 화장실 등을 갖추어 웬만한 캠핑장 못지않다. 캠핑의 꽃은 요리. 1천800㎡에 이르는 바비큐장은 피크닉 테이블과 그릴 등을 갖추어 휴일이면 빈 자리를 찾을 수 없다.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바비큐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퍼진다. 캠핑장 주변에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의 가을꽃과 야생화가 소담스럽게 군락을 이루어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긴다. 또 산책로 곳곳에 정자와 벤치가 놓여있어 가을별을 피해 잠시 쉬어가기 좋다.

이용 TIP 캠핑장은 오후 10시까지, 선착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치 송도3교를 지나 200m 정도 가면 우측에 캠핑장 입구 표지판이 보인다.
주변 명소 송도3교~G Tower 구간 코스모스길, 송도센트럴공원, 컴팩스마트시티 등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453-7254



낮엔 고기 잡고, 밤엔 별 보고 영종도 만정캠핑장

바다가 그리울 때면 영종도로 간다. 육지와 섬을 잇는 긴긴 인천대교, 차창 밖에서 바다가 바람처럼 밀려온다. 땀에 부딪히는 바람의 감촉이 가을이 왔음을 알려 준다. 바다 건너 영종도 중산동으로 가 호젓한 정취의 만정캠핑장에 이른다. 이곳엔 강태공들 사이에서 바나낍시와 민물낍시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진 만정낍시터를 중심으로 텐트촌이 들어서 있다. 3천 305㎡에 이르는 캠핑장에는 텐트 30여 동을 설치할 수 있으며, 샤워실, 화장실,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낍시터는 바다낍시터와 민물낍시터 각각 두 곳이 있으며, 캠핑장 이용객에 한해 이용료 5천원을 할인해 준다. 일상에서 벗어나 나와 가족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 밤에는 쏟아지는 별을 마음에 담고, 낮에는 낍실타대를 드리우며 삶의 여유를 낍는다.

이용 TIP 이용요금은 주중 2만5천원, 주말 3만원(성수기 제외). 주말이용 시 예약은 필수. 수시로 고객 대상 이벤트를 하고, 여름철에는 어린이 전용 풀장을 개장한다.
위치 중구 영종순환로 281(중산동 1853번지),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택시로 15분 소요.
주변 명소 인천국제공항, 을왕리·왕산 해수욕장, 영종·인천대교 전망대, 백운산 등 문의 751-0022, cafe.naver.com/manjungcamping





가을 안으로 바다가 밀려오다

강화 씨사이드힐 캠핑장

가을, 수더분한 땅빛 좇아 강화로 간다. 차를 달려 섬으로 가는 길, 햇살 바람 바다 하늘은 모두 나와 하나가 된다.

강화도 마니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씨사이드힐 캠핑장은 캠핑족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명소다. 캠핑장이 바다를 향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어 어디서든 바다를 품을 수 있다. 그래서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늘 바닷가를 중심으로 텐트촌이 작은 마을을 이룬다. 이곳은 캠핑의 낭만은 좋지만 불편함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매점 등의 편의 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다. 또 언제든지 가볍게 캠핑장을 찾을 수 있도록 텐트 및 식기, 바비큐 그릴, 침낭 등 캠핑장비 일체를 대여해 준다. 관리동 2층에는 자연 안에서 안락한 휴식을 원하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이용 TIP 이용 요금은 4명 기준 비수기 주중·금요일 3만원, 주말 5만원, 성수기 주중·금요일 4만원, 주말 5만원. 텐트 대여료는 8만원에서 12만원, 게스트하우스 이용요금은 12만원에서 20만원.

위치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680-12(내리 2165-18번지)

주변 명소 전등사, 석모도, 보문사, 동막해수욕장, 마니산, 강화갯벌센터, 옥토끼우주센터 등

문의 010-2169-3132, www.seasidehillcamp.co.kr



노을 내리고 별 쏟아지는 밤

경인아라뱃길 두리생태공원 야영장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뱃길인 경인아라뱃길. 그 곁에는 파크웨이와 자전거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고 생태공원이 푸르게 드리워 있다. 아름다운 마을을 뜻하는 수향 8경도 곳곳에 빛나고 있다. 그 가운데 6경인 두리생태공원에 야영장이 임시 개장했다.

야영장은 산, 바다, 습지 등 다채로운 자연경관에 둘러싸여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공원 내 습지를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로와 목재데크를 따라 호젓하게 거닐고, 가까이 있는 계양나루터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아라 자전거길 18km를 맘껏 달려 보자. 김포터미널 아라마리나에서 요트, 카약, 수상자전거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겨도 좋다.

인천터미널 인근에는 해님이 명소인 정서진이 있다. 노을로 세상이 붉게 붉게 물드는가 싶더니, 이내 초롱초롱한 별들이 서편 하늘을 수놓는다. 이 가을, 야영장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간다.

이용 TIP 야영장은 다음 달까지 임시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경인아라뱃길 홈페이지 또는 4대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www.riverguide.go.kr)에서 사전 예약한 후 이용한다.

위치 계양구 굴현동 28-1번지 일원

주변 명소 정서진, 아라타워, 함상공원, 아라폭포, 아라마루 등
문의 010-3824-0426, www.giwaterway.kr

숲 한가운데, 이 계절을 느끼다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인천대공원에는 자연이 깊고 푸르게 빛난다. 관모산과 상아산이 병풍 드리우듯 감싸안은 공원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 쉰다. 그 숲 한가운데 캠핑장이 들어선다.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은 면적 2만9천370㎡에 야영지 103면을 만들어 드넓게 조성했다. 또 잔디광장, 매점,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등을 갖추어 편리함을 높였다. 이곳은 특히 숲이 울창한 인천대공원 안에 들어선 만큼 그 어떤 야영장보다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 3~4년 후면 숲이 더 푸르게 우거진 깊은 숲 속에서 아침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사계절 자연으로 빛나는 인천대공원은, 가을이면 관모산을 중심으로 색색의 물감을 풀어놓은 듯 단풍이 피지기 시작한다. 살랑하게 부는 바람을 가르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가을 안으로 추억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용 TIP 야영장은 이달 안으로 문을 연다. 사용료는 1만5천원에서 2만원, 텐트는 1만원에서 3만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전기 사용료는 5천원이다. 임시주차장은 인천대공원 정문 우측 주차장 1시 방향에 있다.

위치 남동구 무네미로 236(장수동)

주변 명소 인천대공원 내 습지원, 수목원, 대공연장, 어린이동물원, 호수, 환경미래관 등

문의 인천동부공원사업소 440-5844



맑고 뽀얀 국물 속 흰밥

건강이 담뿍

글 김윤식 시인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사람 입맛이 참 간사하다. 여름 내 냉면이나 막국수 같은 찬 음식을 대 먹다시피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밥집을 찾게 된다. 구미(口味)도 이렇게 염량(炎涼)이 분명한 것인지…. 아마 이제 곧 찬바람이 불면 더욱 따끈한 국밥에 소주 생각이 간절해질지 모른다.

국밥은 본래 장국밥을 이르는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보면 대략적인 조리법이 나와 있다. ‘국밥에 관한 조리법은 조선 말엽의 ‘규곤요람(闕壺要覽)’에 처음 보인다. 기름진 고기를 장에 조린 뒤 그것을 밥 위에 부어 만든다고 했다. 국밥에는 주로 맑은 장국을 이용한다. 맑은 장국은 기름기가 없도록 끓여서 간장으로 간을 맞춘

국이다. 주로 쇠고기의 양지머리를 이용하고 우둔살을 이용하기도 한다. 우둔살은 소의 불기쪽에 붙은 고기로 힘줄도 없고 기름도 섞이지 않아 삶으면 잘 풀어지고 고기 맛이 잘 우러난다.’

1970년대 이후 소머리국밥 정식 메뉴로 등극

여기서 보듯 국밥의 특징은 그것이 밥과 국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가정의 밥상에는 밥과 국이 항상 따로 오르는데 먹는 사람이 따로따로 먹든지, 먹다가 국에 밥을 말아 먹든지 한다. 또 다른 어느 인터넷 사전은 “국밥을 처음부터 말아서 내오지 않는 이유는 밥의 전분이 국물에 퍼지면 국물의 깔끔함이 사라지며 밥 또한 퍼질 수 있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맞지 않는 말이다. “밥의 전분이 국물에 퍼지면…”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즉석에서 말아 주는 밥이 어째서 그리 쉽게 퍼질 수 있나?

아무튼 요즘에는 국밥을 거의 볼 수가 없다. 어쩌다 시골 장에 따라가 보아도 옛날 장국밥은 구경하기가 어렵다. 약식(略式)이기는 했어도 1960년대 대학에 다닐 때 구내식당에서 제법 그럴 듯한 장국밥을 먹었던 것이 끝 기억인 것 같다. 수백 명이 먹는 학교 식당이어서 깨지기 쉬운 뚝배기는 쓸 수 없어 요즘 냉면 그릇 같은 큰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냈지만, 정가 40원짜리(그때 돈 가치를 환산해 보기 바란다.) 국밥치고는 질이나 양에 있어 아주 훌륭했다. 밥 위에 넉적한 쇠고기 살을 몇 점 덮고 거기에 맑은 국물을 부은 뒤 양념장을 한 숟가락 끼얹어 주는 것이다.

그 후로는 설렁탕, 곰탕밖에는 더 이상 장국밥을 볼 수 없었다. 그나마 양이나 곱창, 곤자소

니 따위를 많이 넣는 곰탕은 아예 사라지고 말았다. 그 대신 내장탕이라는 메뉴가 개발되었는데, 육개장처럼 국물을 빨갭게 끓여 내는 것이 전의 곰탕과 다르다. 그리고 언제부터였는지 아예 ‘소머리국밥집’이라는 독립된 탕반집이 전국의 거리 거리에 즐비해진 상태다.

기실 소머리국밥은 명칭부터가 다소 엽기적이다. 근자에 어느 연세 높은 어른이 ‘머리’라는 말은 사람에게나 쓰는 것이지 짐승에게는 당치 않다며 소머리국밥이 아니라 소대가리국밥이라야 맞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는데, 그 이론이 옳다 해도 음식 이름으로는 몹시 상스러운 느낌이다.

어쨌거나 소머리국밥은 그 옛날에는 메뉴에 없었던 음식이다. 아무리 기억을 뒤져도 이런 이름을 가진 음식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는 속담도 있지만, 한국인에게 소는 뿔과 가죽과 네 발굽을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 령터라도 앞서 말한 대로 과거에는 ‘소의 머리’를 그대로 조리(調理) 이름으로 해서 음식을 해 먹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짐작컨대 소머리국밥이 음식점 정식 메뉴로 등장한 것은 아마 1970년대를 지나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크게 도약, 발전하기 시작하던 때가 아니었나 싶다. 조리, 요리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한번 이의 상관관계를 파헤쳐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다. 경제가 윤택해지고 육류 소비가 늘어 쇠고기가 부족해지자 전에는 조리용으로 크게 각광받지 못하던 우두(牛頭)까지 국밥의 재료로 등장한 것이 아닌지….



큰 가마솥에 밤새 고아 낸 뜨끈한 국물 맛

각설하고, 이제 엇그제 맛을 본 소머리국밥과 내장선지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워낙 탕반류를 호식하는 편인데 마침 사진을 찍는 흥 작가가 부평구 산곡동에 아주 참한 소머리국밥 집이 있다는 귀뜸을 해 준 것이다. 얼마 전, 친지를 따라 우연히 들러 맛을 본즉 썩 훌륭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리에 군침이 돌아 이내 흥 작가와 함께 날짜를 잡고 달려간 것이 바로 엇그제였다.

옥호를 그저 ‘맛좋은집’이라고 붙인 이 국밥집은 서구 가좌동쪽에서 출발해 원적산 관통로(전에는 철마산 관통로라 했었다.)를 넘어 오른쪽의 명신여고를 지나치자마자 나타나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해, 다시 한 2~3백 미터쯤 들어간 길가에 있다. 이 길이 원적산 공원길이다. 부평구 산곡동 179-80번지, 이렇게 주소를 말하면 더 편할지 모르겠다. 거기에 담벼락은 푸른



색이고, 문 앞에는 세로로 ‘소머리국밥’이라는 큰 입간판을 붙여 놓았다.

문을 들어서면 바로 옆에 큰 가마솥이 걸려 있다. 여기서 밤새 고기를 고아 낸다. 이어 상을 죽 늘어놓은 대청처럼 생긴 마루방으로 올라서게 되어 있다. 이 마루방을 가로지르면 잇대어 장판방이다. 거기에도 같은 모양의 상들이 놓여 있다. 두 군데를 합치면 4, 50명 단체 손님도 거뜬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고만고만한 이웃집들을 몇 채 사서 이어 붙인 것이다. 가게가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천정은 납작하고 실내는 세련되지 못한 대로 국밥을 파는 수더분한 주막 느낌을 준다.

“무얼로 하실까요?”

60대 중반, 인심 좋은 인상의 주인 진순자(秦順子)씨가 웃음 띤 얼굴로 먹을 음식을 묻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 집 대표 메뉴인 소머리국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내장선지국이요.” 하고 말았다. 먼저 와 앉은 옆 상의 객들이 후후 입으로 김을 불며 먹는 내장선지국이 하도 먹음직스럽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흥 작가가 소머리국밥을 주문했기 때문에 각자의 음식을 반반씩 나누면 두 가지 맛을 다 보게 된다.

내장선지국을 받고는 옆 상에 앉은 사람들처럼 젓가락 가득 콩나물과 선지덩이를 들어 올려 후후 입김을 불었다. 그 사람들이 그렇



게 하는 이유는 뚝배기가 원체 뜨거워 조금이나마 식히려는 행동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음식을 제대로 먹는 식사법인 양 따라해 본 것이다.

푸짐한 선지덩이와 흠뻑 익은 소의 내포 그리고 시원한 콩나물이 씹는 대로 만족스러웠다. 국물도 진해 풍염한 느낌이다. 그득한 선지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잘 삭은 새우젓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 아주 독특한 맛을 낸다. 이 젓갈장이 이 집 선지를 특미로 만드는 매력점이라 할 수 있겠다. ‘야, 이거!’ 하는 느낌과 밖에서 가늘게 뿌리고 있는 초가을 비까지 자꾸 부추겨 하마터면 낫술의 유혹에 빠질 뻔도 했다. 언제 한가한 저녁 시간에 다시 올 수 있으리라.

소머리국밥 31년 노하우, 정성으로 음식 만들기

간판으로 내건 소머리국밥의 그 담백하면서도 넉넉한 맛 또한 상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끈한, 그리고 맑고 뽀얀 국물 속 흰밥과 소머리고기가 더없이 정갈하고 잡냄새가 전혀 없다. 진순자씨의 소머리국밥 집 경영 31년의 노하우와 정성이 배어 나온 결과다. 듬성듬성 여성끼리도 와 앉는데 깨끗한 맛 때문일 것이다. 과연 이제 소머리국밥이 설렁탕, 해장국과 함께 한국인의 음식으로 널리 보급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다른 식사 메뉴로는 우거지선지국과 묵밥이 있다. 수육과 모두부,

묵무침은 술손님을 위한 안주 종류다. 모두부는 손 두부 한 모를 뜻한다고 한다. 소머리고기가 탐탁지 않은 사람에게는 삼겹살이 추천할 만한 메뉴다. 두툼하고 넓적한 돼지 삼겹살을 상마다 장치한 무쇠솥뚜껑 같은 번철에 올려 굽는데 익어 풍기는 냄새에서 아주 좋은 향취가 난다. 치아 사이에서 탄력 있게 씹히는 맛도 일품이다. 평소 삼겹살에는 구미가 썩 동하지 않는 편인데도 그날은 서너 점이나 입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맛좋은 집! 흥 작가의 추천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

진순자씨는 강원도 주문진이 고향이다. 남편의 원 고향은 황해도 개풍군, 전쟁 때 강화로 피난 나온 집안이었다. 친오빠와는 우리나라 굴지의 한 시멘트 회사 동료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오빠의 중신으로 결혼에 이른 것이다. 남편과는 8살 차이가 있지만 나이 많은 남편 얻으면 잘해 준다는 말에 그냥 결혼했다며 얼굴을 붉힌다. 그러나 남편은 14년 투병 끝에 7년 전 세상을 떠났다.

국밥집을 시작한 것은 남편 때문이었다. 생활도 생활이었지만, 무엇보다 남편 건강을 위해 국밥집을 시작한 것이다. 남편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인근 금호아파트 앞에서였다. 그 후 공기 좋은 이곳으로 이사해 12년째다. 그 31년 동안 1남 2녀를 다 공부시키고 출가시켰다. 진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잘되는 밥집들이 가진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 첫째는 좋은 재료로 내는 정갈하면서도 뛰어난 맛, 그 다음은 주인의 후덕하고 풍족한 성품일 것이다. 진씨가 흥 작가의 앵글 앞에 서기 전, 얼른 내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화장도 조금 고치고 나온다. 영락없이 ‘이쁘게’를 걱정하는 소녀 모습이다.

문의 : 507-4458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 ‘韓·中·日’ 역사 담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류은규(51)씨는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다. 그의 작업은 선이 굵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만의 사진세계를 구축했다. 옛 생활방식을 고수하며 생활하는 지리산 ‘청학동 사람들’, 중국에서 남모르게 외로이 사는 ‘독립군 후손들’, ‘춘천교도소-경성감옥 분감 내부 모습’ 등. 작가는 역사의 무게가 두텁고 감히 범접하기 힘든 사진들을 내놓아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명도가 높은 류 작가는 최근 인천에 뿌리를 내렸다. 그것도 한국, 중국, 일본 근현대사의 혼적과 문화가 공존하고 개항의 역사가 생생히 살아있는 중구 관동이 그의 삶에 최종 정착지가 됐다.

류 작가의 삶은 동아시아 삼국이라 불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물고 물리는 격동의 세월, 영욕의 근현대사와 맞물려있다. 그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뉘우치고 한국의 역사를 알고 싶어 유학 온 일본인 여성과 1991년 결혼했다. 그녀와 결혼한 후 중국으로 건너가 연변대 민족역사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중국에 있던 우리 민족의 일제시대 항일운동의 역사를 공부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와 목숨건 전쟁을 벌였으나 그들의 역사가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생존해 있는 독립군과 그 후손들을 찍어 그들의 지난한 역사와 삶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소임처럼 느껴졌다.

그의 앵글에 잡힌 피사체는 항일운동의 후손들인 민족주의자 김규식 선생, 청산리 전투 김좌진 장군, 양세봉 장군 등의 딸들과 동생 등이었다. 그는 지금도 중국 하얼빈대학 영상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 년에 반은 중국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류 작가는 1981년인 30년 전부터 청학동 사람들을 찍어왔다. 대학시절 호기심과 궁금증에 이끌려 찾아간 청학동 사람들의 삶을 그의 카메라 앵글에 30년째 담고 있다. 1983년엔 폐쇄된 춘천교도소 내부를 찍었다. 원래 교도소 내부는 촬영할 수 없지만 몇 번씩 찾아가 교도관을 설득한 결과였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100년의 기억- 경성감옥 춘천분감’이란 이름의 작품으로 세상에 공개했다.

그가 정착한 중구 관동은 아직도 일본풍의 집들이 즐비하다. 그가 살고 있는 집도 일본인들이 살던 적산가옥이다. 그는 그 집을 사진의 작품과 자료들을 전시하고 발표할 자료관으로 만들 생각이다. 중국에서 8년간 있으면서 한·중·일의 역사 자료,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한 사진과 책 5만점을 모았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귀한 사진과 책들이기에 전시하고, 꼭 필요한 현대사 연구자들에게는 대여할 생각이다.

일본인 부인, 한국인 사진작가, 오랜기간의 중국거주. 류 작가에게 한·중·일의 역사와 문화는 작품과 자신의 삶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다. 한·중·일의 문화와 흔적이 곳곳에 녹아있는 인천이 그래서 그와 더 잘 어울려 보인다.

무지, 無知

걸작품 무참히 부수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인천시청 앨범 발췌



김중업(金重業 1922~1988)은 평양 출신으로 일본과 프랑스에서 유학한 후 돌아와 서울대 등에서 후진을 양성한 건축가다. 이후 유럽으로 진출해 프랑스 문화부의 고문건축가를 지냈고 미국 로드아일랜드와 하버드대학 교수로 재직할 만큼 건축계의 대가(大家)였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명보극장(1956), 드라마센터(1959) 3·1빌딩(1969) 올림픽공원 상징조형물(1988) 등이 있다. 그의 작품이 인천에도 있었다.

오림포스호텔(현 파라다이스호텔) 밑에 있던 인천지방 해무청(海務廳·사진1)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양항만청인 이 건물은 1957년에 세워졌다. 해무청은 1903년 경에 설립된 러시아영사관 건물과 나란히 바다를 보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부딪히는 변잡한 풍경과 함께 어우러진 모습은 그림 그 자체였다.

러시아영사관은 1974년에 철거되었고 해무청사는 1992년 경에 사라졌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도저의 삽날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특색 없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섰다. 무지한 반달리즘의 참혹한 결과다. 이제라도 ‘건축학 개론’을 수능과목에 넣어야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1902년 12월 우리나라 첫 이민선이 하와이로 향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55년 10월 18일 하와이 원로교포 방문단 42명이 여의도공항을 통해 고국을 방문했다. 각부 장관들이 영접할 정도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의 복장은 양복도 아닌 한복도 아닌 반양반한(半洋半韓)이었고 한국어에 영어 사투리 억양을 섞어 사용했다. 그들은 첫날 경무대를 방문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 자신도 한동안 하와이에 거주했기 때문에 구면인 사람도 있었다. 16일 동안 그들은 삼부 요인 예방 등 전국 곳곳을 방문했다. 국회를 방문해 한 노인이 방문단을 대표해 인사를 했다.

“서양에서는 우리를 보고 흑인이라고 합니다. 햇볕 아래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을려서 모두 이렇게 검습니다. 여기 와보니 모두가 얼굴이 희어서 외국에 가서 백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 1 건축 대가 김중업이 설계한 인천 해무청. 지금은 사라졌다.
- 2 하와이 원로교포방문단을 환영하는 인천시민들(1955년)
- 3 인천시청을 방문한 하와이 할머니교포들(1955년)
- 4 이 전구가 로데오 불빛의 시작이다(1971년).

그들은 조국을 떠나 낯선 땅 하와이 설탕수수 농장에서 흑인의 얼굴이 될 정도 죽도록 고생한 것이었다.

방문 6일째 되는 날 그들은 50년 전 이민선 탔던 바로 그곳, 인천을 방문했다. 공설운동장에서 수만의 인천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시민환영회가 열렸다(사진2). 이어 시청과 인천항만 그리고 자신들의 모금으로 세운 인화공대를 감격스럽게 시찰했다. 그날 그들은 환영 만찬이 열린 공화춘(현 짜장면박물관)에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사진 3는 인천시청(현 중구청)을 방문한 모습이다.

로데오의 불야성. 이 전구에서 시작되었다. 인천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구월동 로데오거리. 365일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다. 이 구월동 지역에 전기가 들어 온 것은 불과 40여 년 전. 사진 4는 첫 전기불이 들어온 날, 1971년 1월 19일의 모습이다. 인천시 관료인 듯한 젊은 사람이 전등을 켜는 순간 마을 노인은 고마움에 몸뚱이를 돌려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 표시를 한다.

비록 전기는 들어왔지만 꺼떡하면 정전이 되었을 것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등잔 심지에 불붙이는 날도 적지 않았다. 비록 전기가 들어

왔지만 전기료를 아끼느라 어스름 빛만 있어도 전등 스위치를 내렸다. 촌부는 심지어 자식이 불을 켜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조차도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형광등 살 돈도 아까워 두 방의 천정을 뚫어 절반씩 형광등 불빛을 나눠 쓰던 ‘신화’ 같은 이야기를 요즘 젊은이들은 알고 있을까.



인천(仁川)이란 이름을 얻은 지 올해로 꼭 600년이 된다. 빛바랜 과거 사진을 통해 인천의 현재를 가능해보며 미래를 그려 본다. 이 지면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른바 인천의 ‘산업화’ 시절 사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그 속에 담 흘리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코 흘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율리아 피셔&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공연

숨겨진 보석,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5년 만의 내한
21세기 바이올린의 새로운 여제, 율리아 피셔의 첫 내한 공연

음악의 고도(古都)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명문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미하엘 잔데를링을 새로운 수장으로 맞아 5년 만에 내한한다. 협연에는 21세기 새로운 현의 여제로 등극한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가 함께한다. 진중한 폭격의 드레스덴 필과 새로운 현의 여제 율리아 피셔의 만남만으로도 국내 클래식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이번 한국방문에서는 인천과 서울 단 두 곳에서만 공연을 갖는다. 프로그램은 독일의 정취가 물씬한 브람스 교향곡 4번과 애호가들이 열망해온 명곡 드보르자크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꾸며진다. 독일 관현악의 권위 있는 해석과 절도를 계승하는 미하엘 잔데를링의 날카로운 감각, 유럽에서도 무한한 사랑을 받는 드레스덴 필 특유의 동독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다.

일시 : 10월 29일(일) 오후 2시, 5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1층 4만원, 2층 3만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어린이명작무대 <고추장 떡볶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엄선한 세 번째 어린이명작무대 <고추장 떡볶이>는 응석받이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연극이다. 과잉보호를 받는 초등학생 비룡과 유치원생 백호는 갑작스런 엄마의 입원에 잠시 해방감을 맛보지만, 식사, 등교, 집안 청소 등 일상 생활이 엉망이 되자 엄마의 빈자리를 느낀다. 하지만 점점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급기야는 주방을 난리통으로 만들면서도 엄마를 위한 고추장 떡볶이를 완성한다. 공연을 관람하면 소공연장 앞마당에서 컵떡볶이가 제공된다.

일시 : 11월 9일(토)~10(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만5천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어린이명작무대 <봇바람>

종이와 봇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어린이 감성 연극 <봇바람>은 동생이 없어 늘 외로움을 느끼는 주인공 대성이가 할머니의 산장에 놀러가서 할머니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며 시작하는 이야기다.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무대는 대성이의 모험을 따라 그려내고, 오려내고, 붙여내는 과정을 거쳐 3차원의 세계로 변한다. 이어 접기와 자르기, 그리기 등 다양한 움직임과 영상, 조각의 만남으로 4차원의 세계까지 만들어 내는 마법을 부린다.

일시 : 10월 18일(금)~20일(일)
금-오전 11시 / 토-오전 11시, 오후 2시 / 일-오후 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만5천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Exhibition	10월 2일~10월 15일	유현덕 캘리그라피 전(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이달의展	10월 4일~10월 10일	그리운 고향, 그리운 어머니(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인천사 생화정기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2013 환경테마전 '반딧불이 마을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0월 6일~10월 12일	이글스 아트페어(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0월 8일~10월 16일	왜 이렇게 그렸을까? 알고 보는 현대미술展(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10월 11일~10월 13일	인천무형문화재 전승 전시(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14일~16일 2013 인천다자언페어(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0월 18일~10월 24일	인천파스텔화회 제19회 정기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10월 18일~10월 29일	생활 속 공예의 멋展(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19일~23일 제6회 사랑의열매 아트페어(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0월 19일~11월 17일	2014 아시안게임 유치 기념! 과자&트릭아트 체험전시(서구문화회관 아트 갤러리)
	10월 25일~10월 31일	2014 AG성공기원 인천정병600년 기념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강은수 박공예 개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2013 인천광역시 박물관 축제(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0월 29일~11월 2일	류재형_설치영상展 꽃게, 연안부두에 들다(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1	2	3	4	5
<div>10</div> <div>CALENDAR PERFORMANCE</div>		어린이 위생 영양 뮤지컬<헬바가와채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초대 ☎인천남구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032-860-9247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세 번째 참 좋은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초대 ☎(주)에이엔에이컴퍼니 02-555-7515	사랑방시내마 <고양이 좀 부평문화사랑방> 10월 4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 선착순 무료 ☎032-505-5995	EBIS 가족뮤지컬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케이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R석 4만5천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5천원 ☎엔엔티타이언트 1588-2341	제8회 플립스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플립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032-248-2665
			어린이 위생 영양 뮤지컬<헬바가와채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30분, 오후 1시 초대 ☎인천남구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032-860-9247		제3회 송도블루스이 청소년 발레단 정기공연 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오후 6시 / 무료 ☎송도블루스이청소년발레단 032-812-6658	황금토끼 홍성타악그룹 고스트의 스틱킥 풍광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아이공간연장 오후 7시,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742
6	7	8	9	10	11	12
EBS 가족뮤지컬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케이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R석 4만5천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5천원 ☎엔엔티타이언트 1588-2341	<div>10.6</div> <div>가야금 앙상블</div>	태너 황건식 교회기념 2013 황혼의 노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인천음악문화원 010-4147-0244	Happy Concer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초대 ☎새로운예술단 032-569-5355	인천무형문화재전승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 초대 ☎무형문화재전승협회 032-468-3595	인천무형문화재전승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 무료초대 ☎무형문화재전승협회 032-468-3595	무형문화재전승연회 032-468-3595
제15회 클래식기타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 전석 1만원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032-833-2060	<div>10.20</div> <div>고래야</div>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헬바올릭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		[플랫폼 초이스] 효성스런 효랑이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4시 / 6천원 ☎극단 보물창기 032-760-1000	[플랫폼 초이스] 효성스런 효랑이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4시 / 6천원 ☎극단 보물창기 032-760-1000	가짜고래 '이상한 수호선' 트라이블 콘서트를 / 오후 3시 / 무료 ☎극단 산 032-760-1014
2013 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쑤> 가야금 앙상블 '담은' 트라이블 콘서트를 오후 5시 / 무료 ☎032-875-4644				2013 인천연주문화사랑축제 연수구문화회관 오전 11시~오후 5시 ☎연수구 연수문화원 032-821-6229		인천뉴필과 함께하는 개관기념음악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오후 4시 / 1만원, 학생 무료 ☎032-760-3457
13	14	15	16	17	18	19
인천무형문화재전승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4시, 7시 / 초대 ☎무형문화재전승협회 032-468-3595		인천시민의날 기념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초대 ☎인천광역시 총무과 032-440-2503	환경뮤지컬 <지구가 아파해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 상상 010-6757-1948	환경뮤지컬 <지구가 아파해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40분 /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 상상 010-6757-1948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31회 정기연주회 <Maestro & Rising Star in Incheon V>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사)인천음악협회 032-873-7772	2013 인천음악제 개막연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사)인천음악협회 032-873-7772
[플랫폼 초이스] 효성스런 효랑이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1시, 3시 / 6천원 ☎극단 보물창기 032-760-1000		제6회 관교여성무용단 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무료 ☎관교여성무용단 010-6311-5830	캐피탈시티<모티브>의 루비루비 무비콜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플랫폼 초이스] 처음, 오디세이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8시 / 2만원 ☎극단 수수파보리 032-760-1000	어린이명작무대 <봇바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어린이명작무대 <봇바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2013 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쑤> 소리코아 박진정 명창 트라이블 콘서트를 오후 5시 / 무료 ☎032-875-4644			[플랫폼 초이스] 처음, 오디세이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8시 / 2만원 ☎극단 수수파보리 032-760-1000	어린이를 위한 연가 뮤지컬!!!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1만 5천원 ☎032-500-2000	어린이명작무대 <봇바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플랫폼 초이스] 처음, 오디세이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4시 / 2만원 ☎극단 수수파보리 032-760-1000
			어린이를 위한 연가 뮤지컬!!!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1만 5천원 ☎032-500-2000	음악과 함께 행복한 아침을 여는 '보물창 콘서트' 서울기타콘서트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7시 / 3천원 ☎032-507-5996	어린이를 위한 연가 뮤지컬!!!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1만 5천원 ☎032-500-2000	어린이를 위한 연가 뮤지컬!!!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1만 5천원 ☎032-500-2000
			연극 레미제라블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대공연장) 10월16일(수) 오후3시, 7시 1만 5천원, 학생 1만원 ☎032-453-5713	한울소리 타악퍼포먼스 '유쾌한 드러머' 인천광역시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오후 7시 / 무료 ☎032-899-1516~7		스튜디오 '세익스피어인 클래식'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19일(토) 오후 4시 / 6천원, 학생 무료 ☎032-760-3457
20	21	22	23	24	25	26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무료 ☎송도청소년교향악단 032-819-0505		제17회 인천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초대 ☎인천여성가족재단 032-511-3141	음악극 <호랑님 생일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 보물창기 032-819-1002	인천시립합창단 제137회 정기연주회 <Maestro & Rising Star in Incheon V>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인천시립합창단 1588-2341	타악그룹 타고 '천음(天音)' 부평문화사랑방 10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천원 ☎032-505-5995	2013 리쌍 전국투어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주)공인마루 062-528-7880
어린이명작무대 <봇바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음악극 <호랑님 생일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 보물창기 032-819-1002		제31회 제물포 예술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추후결정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032-872-7873
[플랫폼 초이스] 처음, 오디세이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4시 / 2만원 ☎극단 수수파보리 032-760-1000			가을의 오페라이마가 브런치오페라 <사랑의 묘약>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 1만원 ☎032-500-2000	인천교통방송과 함께하는 트라이블 <청춘콘서트> 트라이블 콘서트를 오후 7시 / 무료 ☎032-760-1014		주인들과 함께하는 트라이블 콘서트 <동네콘서트> - 만요컴퍼니 트라이블 콘서트를 오후 7시 / 무료 ☎032-760-1014
2013 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쑤> 고래야 트라이블 콘서트를 오후 5시 / 무료 ☎032-875-4644	Welcome Incheon, 젊은 국악 세계인과 말한다 트라이블 콘서트를 오후 7시 30분 / 무료 ☎032-875-4644					
27	28	29	30	31		

27	28	29	30	31
<p>2013 리쌍 전국투어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VIP석 9만1천원, R석 8만8천원 ☎(주)공인마루 062-528-7880</p> <p>제31회 제물포 예술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추후결정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032-872-7873</p> <p>2013 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쑤> 더 룩' 국악실내연단 트라이블 콘서트를 / 오후 5시 / 무료 ☎032-875-4644</p>	<p>율리아 피셔 &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南樂, 열린무대 남동문화예술회관 스튜디오 제비 저녁8시 / 무료 ☎032-453-5713</p>	<p>제26회 이천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주)이천문화 032-760-0780</p> <p>마침뮤지컬 '청소부 토끼' 부평문화사랑방 저녁 7시 / 3천원 ☎032-507-5996</p>	<p>10.25 타악그룹 타고 '천음(天音)'</p>	<p>10.26 만요컴퍼니</p>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립니다!



2014년 인천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2주 후인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A Wave of Passion, Now Begins!)’ 라는 슬로건 아래 ‘제11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가 개최된다.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2개국 6천 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3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일반대회보다 종목수는 적지만 지체, 지적, 시각 등 장애 유형별로 경기를 따로 하여 메달 수는 오히려 더 많다. 또 보치아, 론볼, 골볼 등 일반 경기에선 볼 수 없는 경기들을 열어 관심을 끈다. 장애를 극복하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경기에 임하는 장애인선수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한다. 특히 ‘제11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개·폐막식의 총 감독으로 박칼린이 선임되고, 산악인 엄홍길과 영화배우 한효주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성화를 형상화한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엠블럼은 세계3대 디자인상인 201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입상했다. 그리고 인천의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모티브로 한 마스코트 드노피와 저노피는 귀여운 이미지로 벌써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

블로그 ▶ blog.naver.com/2014apg

페이스북 ▶ [facebook.com/2014apg](https://www.facebook.com/2014apg)

트위터 ▶ twitter.com/2014apg

유튜브 ▶ youtube.com/2014apg

문의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458-5372

송도 미추홀공원에 산림체험교육장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산림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송도 미추홀공원에 산림체험교육장을 조성한다.

인천산림조합은 공원 내 3만3천㎡ 터에 내달부터 상록교목, 낙엽교목, 관목 등 82종 2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경제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곳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산림체험교육을 시행한다. 또 매년 2차례 축제를 열어 산나물, 버섯 등 임산물을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253

제1회 인천시 ‘공예명장’ 선정

우리는 공예산업의 발전과 전통공예 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제1회 ‘인천시 공예명장’을 선정하기로 하고,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선정분야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완초, 기타 공예로 1명 내외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공예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인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고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문의 : 시 기업지원과 ☎440-4255

자유무역지역에 생산·연구시설 건립 첫 삽

반도체 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 생산·연구시설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2015년 들어선다.

지난달 4일, 스태츠칩팩코리아 생산·연구 시설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에는 김원규 스태츠칩팩코리아 대표, 정창수 인천공항공사 사장, 김재영 서울지방항공청장, 김교홍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원규 대표는 “물류 인프라가 탁월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전략적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설은 2천36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1만㎡ 규모로 지어진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2015년 6월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서 국제공항과 가깝고 세제 혜택 등이 있는 이 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시는 이 기업의 이전으로 매년 3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1만여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시 투자유치담당관 ☎440-3292



시립승화원 사용료 감면 서류 간소화

우리는 시립승화원의 화장장 이용 시 유족들이 사용료 감면을 위해 제출했던 구비서류를 이달부터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립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은 ‘e



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화장예약 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을 하면 화장 당일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료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화장 당일 화장장 사용료(관내 9만원, 관외 100만원)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대상자확인원,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4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주말 이용자는 공공기관 휴무로 인해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용료를 완납 후 평일에 재방문해 환불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승화원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 4월부터 안전행정부의 협의회와 실사를 거쳐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을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후 최근 공인인증서 사용등록을 완료했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33

옛 미림극장 ‘실버전용극장’으로 재탄생

대형 복합상영관에 밀려 개관 47년 만에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인천 미림극장이 시민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시는 지난달 12일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 마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실버전용극장 지원 협약식을 동구와 체결했다.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지부는 동구 송현동 옛 미림극장을 250석 규모의 ‘실버전용극장’으로 리모델링, 오는 10월 2일 문을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버전용극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동구는 실버전용극장 주변 환경조성과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는 실버전용극장 설립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구도심에 위치한 실버전용극장 주변 상가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또 “인천영소 투어, 추억의 도시락 식당운영 등 실버전용극장과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사회적경제과 ☎440-4912

검단신도시 중국인 학교 설립 양해각서 체결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내 중국인 학교 설립사업을 위해 중국 심양천북흥기건설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인 학교 설립사업은 학생 및 교사 약 1천500명 수용 규모에 학교용지 16만5천㎡, 주거 및 상업 등 복합용지 33만㎡ 규모로 계획중이다.

검단신도시 내 중국인 학교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국내 거주 중국인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한·중 교육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도시공사는 향후 심양천북흥기건설그룹과 매매대상 부지 및 재원조달 등의 협의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 사업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사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급되는 토지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철저한 시장조사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260-5062

2014 인천AG 시상메달 디자인 발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메달 디자인이 지난달 22일 공개됐다. 원형 형태의 메달 앞면에는 개최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하늘·바다·정보·레저·비즈니스 등 5개 요소를 상징하는 오각형 문양과 대회 엠블럼이 새겨졌다.

대회 조직위는 인천이 동북아 중심의 허브도시라는 의미를 메달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메달 뒷면에는 송영길 시장의 제안에 따라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시상메달 최초로 한글과 영문 슬로건을 함께 표기했다.

조직위는 이날 메달 디자인을 비롯해 상장·시상대·꽃다발 등 시상 부문 12종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내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린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8-2351~3



2014 AG 강화경기장 현장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강화경기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경기장 건설 시공사와 소관부서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로부터 경기장 건설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AG 강화경기장은 현재 공정률 98.88%로 9월 말에 준공했고 680억원(국비 204억, 시비476억)의 사업비를 들여 실내경기인 태권도와 탁구 4천014석과 실외경기인 BMX 1천10석의 규모다. 위원회는 또 지난달 3일 남동구 소재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인천인력개발센터는 1994년 개소된 이후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등을 시행해 왔으며 2012년에는 2천700여 명이 취업했고 76개 교육과정에 6천여 명이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추가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 배경에는 지난 6월 27일 개통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청라나들목의 교통량과 관련이 깊다.

청라나들목은 당초 국토교통부가 예상한 일 평균 교통량 3천500여 대를 2배 이상 초과한 일 평균 7천200여 대(유료교통량)의 차량이 이용했고, 최근에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서 일 8천대를 넘어섰다.

지난 7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차종별로 400원~900원)하면서 밝힌 통행료 인하의 재원이 청라나들목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이었던 만큼, 당초 예상치의 두 배가 넘는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에 조속히 통행료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인천시민들에게 약속한 2014년 상반기 예정인 통행료 추가인하를 조속히 시행하여, 도로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도로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위 활동 종료

인천광역시의회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5일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일 출범한 특위는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시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총 236건의 개선사항을 토대로 3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했다. 이를 통해 아라뱃길 사업으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변 지역 활성화(물류, 레저·관광) 방안 및 하천수질보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건의 개선사항을 해결토록 했고, 35건의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키로 했다.

소방안전본부 남부소방서 현지시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소방분야의 2013년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차, 지난달 4일 소방안전본부와 남부소방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시찰은 올 해 3월부터 설치하고 있는 '산소방' 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위한 것이다.

'산소방'은 지난 5월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미국시찰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개선 요구사항의 추진점검과 소방공무원들의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설치했다.

이용범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건전화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공동 주관으로 '인천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천시와 시의회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성과를 짚어보고, 특히 5.30재정대책과 성과, 향후 인천시 재정운영 추진방향,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는 이용범 인천시 예산담당관, 박준복 참여예산센터소장이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정성호 강원대 교수, 김재훈 서울과기대 교수, 홍성욱 인천시의원,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서구 공촌천 하천 지킴이 위촉장 수여

인천청소년그린봉사단은 지난 8월 29일 인천환경정화협회 김갑식 회장과 함께 가좌고등학교 환경동아리 그린봉사단 학생 43명에게 서구 공촌천 하천 지킴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여름철 우기때 떠내려온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등 공촌천 정화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개교한 하늘초등학교 시설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5일에 9월 1일 개교한 하늘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학교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교구 현황과 특별교실 및 급식시설 등 학교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특히 학생 통학로 주변의 안전시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영종도에 위치한 하늘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과 학교시설 등을 점검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제2기 사랑나눔 장학생에 장학금 전달

인천광역시의회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고자 금년에 새로 선발한 제2기 사랑나눔 장학생 18명을 제210회 본회의 개회식에 초청하여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나눔 장학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일동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모금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역경을 딛고 미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눔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자 2007년 12월부터 시작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이 장학회는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중등학교 1학년 모범생을 대상으로 선발한 제2기 사랑나눔 장학생 18명에게 매월 100천원씩 70개월 동안 적립하여 1인당 7백만원씩 총 1억 2천 6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의원 창의 교육과정 개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8월 30일 도시재생, 환경, 산업, 문화, 복지, 교육, 재정, 국제협력 8개 분야에 대하여 '의원 창의 교육과정'을 개최했다.

'의원 창의 교육'의 목적은 시정 전반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인천시의 당면 과제를 분야별로 연구·토론하고 이를 통하여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창의 교육은 4일에 걸쳐 8회의 강의와 우수 사례 지역 현장 답사 1회로 구성했다. 강사는 한양대, 인하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전문 교수로 강사 구성해 전문성을 꾀했다.

8월 30일 첫 번째 강의는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시청 관련부서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분야의 '도시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동향'과 환경 분야의 '친환경 도시계획'에 대해 들었다.



Info+box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미추홀도서관은 10월 도서관 문화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독서아카데미 '21세기 새로운 인간상을 찾아서'	10월 2일(수)~12월 4일(수) :매주 수요일 19:00~21:00	세미나실1	청소년 이상	440-6662~4
박혁남작가전	10월 12일(토)~10월 21일(월)	미추홀터 전시실(1층)	전체	440-6633
시민건강강좌 '심장질환'	10월 13일(일) 10:30	세미나실1	전체	440-6662~4
국악공연 '천동먹은 호랑이'	10월 19일(토) 14:00	강당(지하1층)	전체	10월 2일~마감 시 (홈페이지 접수) 440-6662~4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e-book 및 오디오 북 서비스	24시간	미추홀도서관홈페이지 스마트폰	전체	440-6654~5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일 14:00	강당(지하 1층) ※홈페이지 참조	-	440-6641~2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요일 16:00	꿈나무터 문화교실 (1층)	4세~ 초등 5학년	440-6647~8
책마중(관외예약 대출·반납)서비스	24시간 대출·반납	예술회관역(지하 2층) 미추홀도서관(1층 입구)	미추홀도서관 회원	440-6634~5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ichuhollib.go.kr)를 참고하세요.

2013년, OBS 연중캠페인

“사람世上을 만듭니다”

채널안내 670-5500 , 뉴스제보 670-5555

경찰25시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 5분 / 경찰들의 뜨거운 땀과 눈물 속에 100%의 진한 감동과 여운이 살아 숨 쉰다. 범죄 현장을 쫓는 현장밀착 다크멘터리 <경찰25시>는 범인을 검거하기까지의 수사과정과 범죄현장의 긴박감을 6mm 카메라에 생생하게 전달한다.

OBS채널 안내



마틴 리 교수의 예술사진반 개설

사진공간 배다리에서는 예술사진반을 개설했다. 계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신재 소속인 마틴리(Martin Lee) 교수를 초빙, 예술사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가을, 겨울학기

기간 : 9월 28일(토)~12월 21일(토) 총12회

시간 : 오전 10:00~12:30

수강료 : 18만원

수강인원 : 선착순 10여 명 ※ 문자 보내신 분에게는 10% 할인 혜택

문의 : 010-5400-0897

율목도서관 10월 문화예술 행사

율목도서관은 10월을 맞아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화전 및 독후감상화 대회를 통해 쉽게 책과 친해지고, 풍부한 감성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접수기간 : 9월 24일(화)~선착순 접수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참가비 : 무료

문의 : 770-3800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동화연극〉 '방귀쟁이 머느리'	10월 13일(일) 14:00~15:00	본관 2층 소극장	율목도서관 성인동화구연 동아리 '책소리'팀이 각색한 '방귀쟁이 머느리' 동화연극
〈어린이 체험 I〉 '율목도서관 감 시화전'	10월 18일(금) 16:00~18:00	별관 정원	가을맞이 율목도서관 감따기 체험행사 및 감 시화전 그리기 대회 진행
〈도보기행〉 수필가 이성재, 시인 김영승과 함께하는 도보문학기행	10월 26일(토)	율목도서관 인근	인천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의 장소를 토대로 떠나는 도보기행
〈어린이 체험 II〉 '장승 따라, 옛 이야기 따라'	10월 27일(일) 14:00~16:00	별관 어린이실	옛 이야기 '장승 이야기'를 함께 읽은 후, 클레이 장승 액자 만들기 및 옛 문화 알기 체험행사 운영
〈인문학 강의&탐방〉 황해를 밝히는 등대, 살을 밝히는 문학	10월 4일(금) ~19일(토)	율목도서관 및 팔미도	인천을 주제로 한 작품과 인천이 나온 극작가의 문학작품에 대한 강의 및 팔미도 탐방을 통해 문학을 이해
〈영화상영〉 율목미디어데이 & 율목시네마	10월 6일(일)~ 31일(목)	본관 2층 소극장	독립예술영화 및 흥행대박 영화 상영

Info+box

제6회 맑고 푸른 환경사진공모전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6회 맑고 푸른 환경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대상 : 인천시민 및 인천소재 학교 재학생

일반부 : 만19세 이상(성인, 인천소재 대학교 재학생 포함)

학생부 : 만19세 미만(인천소재 초·중·고등학생)

휴대폰사진부 : 일반·학생 공통

응모기간 : 9월 16일(월)~10월 20일(일)

출품수량 : 1인당 3점 이내 미 발표작 출품

※ 휴대폰 부문은 별도 3점 참여 가능

출품료 : 무료 ※ 출품작은 일절 반환하지 않음

문의 : 899-0199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하세요

우리는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이 상품권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

전자 상품권 종류 : 5만원권, 10만원권, 멤버식카드(충전식)

종이 상품권은 기업은행, 우리은행 전자점과 인천지역 새마을 금고, 우체국(인천, 남인천, 인천시청, 서인천, 인천계양, 강화, 백령) 및 신한(송림, 부평, 미추홀, 옹현, 계산, 남인천지점)에서 구매.

전자 상품권은 기업은행 일부지점 및 신한 일부지점에서 구매. 인천지역 40개 전통시장, 13개 지하도상가에서 사용가능.(전자상품권은 일부 가맹점포에 한함)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 www.onnurigift.co.kr

사용문의 : (사)인천상인연합회 : 873-4900

(사)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연합회 : 522-9015

‘적격전환대출’ 등 하우스푸어 지원 제도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적격전환대출' 등의 하우스푸어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격전환대출 대상요건 완화 시행(2013.8.21)

• 대상주택 요건 중 면적요건(전용면적 85㎡이하) 폐지

• 기존대출 요건에 거치기간 3개월 이내 종료예정대출 포함

대상자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인 1주택보유자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본인, 배우자, 부부공동명의 소유
기존대출	1금융권에서 취급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 전체 대출기간의 1/2이 지났거나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대출 • 원리금분할상환중이거나 거치기간 종료일 또는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대출 • 최근 3개월내 30일 이상 연체가 없는 대출
대출한도	최대 2억원(기존대출 잔액 범위내)
신청	기존대출 취급은행
문의	1688-8114

2013년 인천여성 ‘구인·구직만남의 날’

인천여성취업센터는 인천지역 경력단절여성 및 고학력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인천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일시 : 10월 18일(금) 13:00~17:00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대상 : 구인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구직여성

행사내용 : 채용관, 창업관, 취·창업지원관, 부대행사관

참여방법

– 구직자 : 행사당일 직접 방문

– 구인기업 : 참가신청서를 방문 또는 팩스신청(fax, 260-3609)
10월 8일까지(직접 참가기업에는 개별부지원)

문의 : 260-3607, iwwc.or.kr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인천시립박물관은 10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재미있고, 유익한 행사가 당신을 기다린다.

2013년도 제15기 박물관대학 하반기과정 _ ‘근대, 이국(異國)과의 조우’

기간 : 9월 6일~10월 25일, 매주 금요일 14:00~16:00

장소 : 시립박물관 석남홀

주제 : ‘근대, 이국(異國)과의 조우’

진행방식 : 총 7회, 회당 2시간씩 진행

신청방법 :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유선접수 병행

타박타박, 인천 _ ‘개항기 경인가로를 따라서’

기간 : 10월, 둘째 주 일요일 14:00~18:00

장소 : 중구 일대

주제 : ‘개항기 경인가로를 따라서’

진행방식 : 연2회, 회당 3~4시간씩 진행

대상 : 회당 성인 20명

신청방법 :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박博 장場 대대 소소 토요일

주제 : 2명의 가족이 참여하는 박물관 체험

일시 : 10월 12일(매 학기 중 둘째 주 토요일, 10~12시, 1~3시)

대상 : 오전 저학년(1~4학년), 오후 고학년(5~6학년)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

장소 : 박물관 3층 해넘이방

신청방법 : 10월 8일(교육이 있는 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수강료 : 무료

문의 : 440-6732

Info+box

2013 인천연수문화사랑축제

연수구 연수문화원은 문화예술 동아리와 함께 공연과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잔치마당을 연다.

일시 : 10월 12일(토)

장소 : 연수구 문화공원

시간 : 11:00~17:00

체험행사 : 품클레이, 국악기 체험, 우리역사 알기, 민속놀이 등 체험 행사와 클래식 기타 합주, 사물놀이, 민요, 어린이 합창, 난타

어르신 행사 : ‘전통문화 Factory’의 전통차 다도 체험과 기타와 하모니카 합주 연주의 색다른 볼거리도 준비

관람비 : 무료

문의 : 821-6229

나는 미디어다! I Media · I JuMF

남구와 시민이 한마음으로 여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10월 3일부터 열린다. 남구가 주최하고 학산문화원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 오감을 충족해보자.

축제명 : 2013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축제주제 : ‘나는 미디어다’

축제기간 : 10월 3일(목)~6일(일)

장소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주안역광장 일원

주최 : 인천광역시 남구

주관 : 남구학산문화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문의 : 872-2622

미술을 맛보다

부평아트센터는 재미있고 유익한 미술강좌를 마련했다. 미술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달콤쌉싸름한 미술의 세계를 느껴보자.

강사 : 홍경한(미술평론가, 경향 아티클(Article) 편집장)

김노암(전시감독, ‘문화역서울284’ 예술감독)

공주형(미술학 박사,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일시 : 10월 21일(월)~11월 26일(화) 오후 7:30~9:30

(10월 21일만 월요일, 10월 29일~11일 26일 매주 화요일, 총 6회)

대상 : 성인 및 17세 이상 청소년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장소 :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참가비 : 무료

신청방법 : 505-5995

명품 꽃게 특설장터, 화수부두 수산물 한마당' 열려

가을 인천은 바다의 도시답게 수산물 축제가 풍성히 열린다. 국내 최대의 꽃게 산지인 인천이 명품 꽃게의 원산지임을 재확인하고, 인천 꽃게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판매증진과 관광객 유치하고자 ‘인천 명품 꽃게 특설장터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또 6,70년대 정겨운 어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화수부두 위판장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 어민과 관광객이 하나되는 ‘화수부두 수산물 한마당 축제’도 열려 인천의 우수한 수산물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인천명품 꽃게 특설장터 한마당

기간 : 10월 19일(토)~20(일)

장소 : 인천 중구 월미문화의 거리 일대

대상 :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

문의 : 220-2114



시간	일자	10월 19일(토)	10월 20일(일)
11:00~13:00		행사장 준비 및 오픈	행사장 준비 및 오픈
13:00~14:00		오감만족! 오픈스테이지	인천꽃게 요리경연대회
14:00~15:00		오라차차! 꽃게를 이겨라	오감만족! 오픈스테이지
15:00~16:00		모여라! 도전 꽃게벨	오라차차! 꽃게를 이겨라
16:00~17:00		공연 리허설	모여라! 도전 꽃게벨
17:00~18:00		개막식 식전공연(제17사단군악대)	공연 리허설
18:00~18:30		개막식 리허설	
18:30~19:00		개막식	팸페라와 오케스트라의 가을소나타
19:00~20:00		개막 축하공연	
19:00~21:00			
상설행사		11:00~18:00	
		명품 인천꽃게 캐릭터 포토 존 체험 인천꽃게 전통/퓨전요리 강습 인천꽃게 생태체험 나만의 캐리커처만들기 체험 명품 인천꽃게 수험 판매장터 꽃게 특화제품 판매장터	명품인천꽃게 낚시체험 품미예찬! 인천꽃게 무료시식 페이스페인팅 체험 인천꽃게 캐릭터만들기 대박 퍼레이드 인천수산물 판매장터

2013 화수부두 수산물 한마당 축제

기간 : 11월 2일(토)~3(일)

장소 :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대

대상 :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

문의 : 220-2114

일자 시간	11월 2일(토)	11월 3일(일)
10:00~11:00	행사장 준비 및 오픈	행사장 준비 및 오픈
11:00~14:00	상설행사 오픈	화수부두 만선평티 주민노래자랑(참가자 접수)
14:00~15:00	오감만족! 오픈스테이지 1부	오감만족! 오픈스테이지 1부
15:00~16:00	오감만족! 오픈스테이지 2부	오감만족! 오픈스테이지 2부
16:00~17:00	개막식 식전공연	화수부두 만선평티 주민노래자랑(예심 및 리허설)
17:00~17:30	개막식 길놀이	
17:30~18:00	개막식	
18:00~20:00	개막 축하공연	화수부두 만선평티 주민노래자랑(분선/사상식)
상설행사	11:00~20:00	
	인천수험 특설직판장 화수부두 김장젓갈 특설장터 화수부두 수산물 요리강습 나만의 캐리커처 만들기	수산물 먹거리장터 화수부두 소장품 만들기 체험 수산물 요리 무료시식 체험 추억의 DJ 퍼레이드

Info+box

인천광역시 수도사업소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는는 관리권역 광역화와 유사 업무 통합으로 상수도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차원에서 9월 17일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지역 수도사업소를 아래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한다.

현행 (8개 수도사업소)		통합 (5개 수도사업소)
중동부수도사업소 + 남부수도사업소	⇒	중부수도사업소 • 관할구역 : 중구, 동구, 남구 전역
연수수도사업소 + 남동수도사업소	⇒	남동부수도사업소 • 관할구역 : 연수구, 남동구, 용진군 전역
부평수도사업소 + 계양수도사업소	⇒	북부수도사업소 • 관할구역 : 부평구, 계양구 전역
서부수도사업소	⇒	서부수도사업소(서구 전역)
강화수도사업소	⇒	강화수도사업소(강화군 전역)

수도 관련 불편 신고전화 ☎ 미추홀 참물 ☎ 032+121

통합에 따른 수도사업소 대표전화	
중부수도사업소	720-3200(중구,동구), 720-3300(남구)
남동부수도사업소	720-3500(연수구,용진군), 720-3400(남동구)
북부수도사업소	720-3600(부평구), 720-3700(계양구)
서부수도사업소	720-3800(서구)
강화수도사업소	720-3900(강화군)

‘삼국지 영웅들의 리더십’진행

미추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인천시민의 인문학적 교양 함양을 위해 독서아카데미 <삼국지 영웅들의 리더십>을 진행한다.

일시 : 9월 25일(수)~12월 4일(수) 19:00~21:00, 매주 수요일

장소 : 미추홀도서관 세미나실1 (3층)

대상 : 청소년 및 성인 50명

신청 및 문의 : 440-6662

제1회 강화 나들길 시민걷기대회

제1회 강화 나들길 시민걷기대회가 열린다. 청량한 가을하늘과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힐링. 강화나들길에 가보자.

행사일 : 10월 12일(토)

장소 : 강화초교 출발 ▶ 강화북문 경유의 3시간 코스

행사 콘셉트 : 인천시, 강화군의 시·군민으로 개인 및 가족(단체)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며 풍요로운 자연에서 건강한 활력을 찾는 행사
신청기간 : 9월 11일(수)~10월 5일(토), 선착순 2천명
※ 단체로 신청하는 지원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행사기념품 등을 제공 예정

문의 : 440-3066

2014 인천, 장애인AG 자원봉사자 모집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신청기간 : 9월 9일(월)~10월 31일(목)

신청방법 : 인터넷 – WWW.2014AGVT.Kr

시, 군구 자원봉사센터 방문 접수 가능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인 자(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자원봉사 활동혜택 : 식비, 교통비 지급(1일 1만2천원), 자원봉사 유니폼, 모자, 핸드북 지급, 자원봉사 활동기간 인증

활동분야 : 통역, 각종행사장, 관광안내, 교통지원 등

활동장소 : 경기장과외 봉사활동

문의 : 435-4104

2013 인천송도마라톤대회 개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기원 및 제49회 인천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2013 인천송도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동호회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일시 : 10월 6일(일) 09:00

장소 :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대회종목 : 풀코스, 하프코스, 10km코스, 5km코스

참가방법 : www.songdorun.com 홈페이지 참고

문의 : 440-4073

청소년 인천역사기행 운영

한국이민사박물관은 토요일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천역사기행 ‘무한답사’, ‘포와(하와이)로 가는 길’을 운영한다.

일시 : 10월 26일, 11월 23일(월 1회)

장소 : 한국이민사박물관 및 인천 개항장 일대

참가대상 : 중·고등학생 30명(1회차)

답사내용 : 우리나라 공식 이민의 출발지 인천 개항장 도보 답사

답사참가비 : 무료(차이나타운에서 중식 제공)

한국이민사박물관장명의 답사수료증 발급

접수기간(선착순 마감)

– 10월 답사 : 10월 7일(월) 09:00부터

– 11월 답사 : 11월 4일(월) 09:00부터

접수방법 : 한국이민사박물관 홈페이지(mkeh.incheon.kr)

교육프로그램 교육신청에서 신청

문의 : 440-4713

Book



일하는 즐거움 나이들의 행복

손진익 | 북산 | 2013

엘베스트그룹 손진익 회장이 70여 년의 세월 동안 지키고 깨달은 삶의 원칙과 지혜의 기술을 전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어떤 상황이든 목표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 삶이었다고 겸손하게 회고한다. 그는 목표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었기에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한다.



(EBS 다큐프라임)퍼펙트 베이비

EBS 퍼펙트 베이비 제작팀 | 와이즈베리 | 2013

엄마의 자궁 속 환경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양육은 어떻게 해야 완벽한 아이가 되는지를 설명한다. 유전과 환경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엄마의 자궁 속 10개월이 평생의 건강과 정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후성유전학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양육의 해법을 감정 조절 능력, 공감 능력, 내적 동기 형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접근한다.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김경수 | 명진출판사 | 2013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선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사막과 오지에선 '대범한 모험가'가 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방식의 인생을 살아온 저자가 깨달은 강렬한 메시지를 담았다. 저자는 '소심한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내 몸을 도시문명 밖으로 내보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소심하고 열정 없이 지루한 인생보다는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을 조언한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숲

조해진 | 민음사 | 2013

사채업자에게 진 빚 때문에 쫓기는 엄마로 인해 가스 폭발 사고의 사망자로 위장 신고 된 '현수'는 보상금과 함께 조폭에게 팔아 넘겨졌다. 신원이 말소된 상태로 12년 동안이나 살아 온 그는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누나 '미수'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다. 동생이 죽은 줄로만 아는 미수는 현수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그림자처럼 살아간다.

추천도서 목록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4

순번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1	책으로 가는 문	미야자키 하야오	현암사	이와나미 소년문고를 말한다
2	행복의 가격	태미 스트로벨	북하우스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인생을 만드는 삶의 미니멀리즘
3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가	조앤 치티스티	판미동	인생의 질문, 세상의 지혜를 담았다!
4	50대가 두렵지 않은 여자들의 51가지 비결	사쿠라이 히데노리	물병자리	엄마나 아내가 아닌 진짜 여자로 살기
5	일하는 즐거움 나이들의 행복	손진익	북산	인생을 긍정적으로 개척하는 생존전략과 지혜의 기술 58가지
6	잡스가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 이유	조숙경	미래를소유한 사람들	12가지 융합 토크
7	프랑스 아이들은 왜 말대꾸를 하지 않을까	캐서린 크로퍼드	아름다운 사람들	프랑스 육아법에 미국식 접근법의 장점을 접목시켜 만든 육아의 해법을 소개한다!
8	(EBS 다큐프라임)퍼펙트 베이비	EBS 퍼펙트 베이비 제작팀	와이즈베리	완벽한 아이를 위한 결정적 조건
9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김경수	명진출판사	직장인 모험가 김경수의 소심한 인생 벗어나기
10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을 통한) 국제관계 영어	김형국, 정영은	시그마프레스	국제무대에서 사용되는 영어표현들과 국제정세의 흐름을 익힐 수 있다.
11	아무도 보지 못한 숲	조해진	민음사	작가 조해진이 그려낸 유명과 같은 존재들의 발자국!
12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	조한	돌베개	건축가 조한의 서울 탐구



시인 정세훈

1955년 출생

1989년 「노동해방문학」에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
현재 인천작가회의 회장과 한국작가회의 이사로 활동

주요저서

시집 『맑은 하늘을 보면』(1990)

『부평 4공단 여공』(2012) 등

Incheon Life Story

인천 사는 이야기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곧 울긋불긋 단풍 병풍이 드리워지고 단풍 웅단이 깔리겠지요.
인천대공원에서,
이주영 남구 학익소로



송도에 크루즈가 왔어요

'저건 뭐지?' 건물 사이에 크루즈가 있다니... 얼마 전부터 송도에 크루즈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세계여행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 가슴이 벅차오네요.'
송도 스마트밸리에서,
김미혜 연구 송도동



인천항, 그 밤바다

월미산 정상 월미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항의 야경. 바다는 항상 아름답지만 불빛이 어우러진 인천항 밤바다는 더 환상적이었습니다.
윤나영 서구 여우재로



‘엄마아빠는 늘 네 곁에 있단다’

인천대공원에서 즐거운 한때, 자동차를 타는 딸아이와 그 곁을 지키는 우리 그림자입니다. '엄마아빠는 늘 너와 함께 있단다'
박준형 남동구 석산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여기가 어디?



인천의 명소를 맞춰 보세요

힌트 : 예술회관역 지하 1층에 낙타가 있어요.

※ 네 분을 선정하며 접수는 우편과 메일(bluelou7@korea.kr)로 받습니다.

〈지난 호 정답〉 전등사

백은혜 부평구 경인로 / 사재신 서울시 금천구
김용근 부평구 경원대로 / 이승훈 서울시 용산구

그 언덕엔 금빛 용들이

용솟음 친다

‘바닷물 닿는 곳 어디든 화교(華僑)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중국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식칼 하나와 춘장 한 단지만 있으면 청요리 음식점을 차릴 수 있다고 하니 그들 없는 곳은 아마 지구가 아닐 것이다. 중국과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이야 더 할말이 없다. 이제 인천을 이야기 할 때 차이나타운을 빼놓을 수 없다. 한 세기가 지난 오랜 시간이지만 화교들은 그들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에 짜장면만 있다고? 그 말 들으면 왕서방들이 많이 섭하지.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수놓인 거리를 따라 고양이 도도와 함께 비자 없이 만나절 중국여행을 떠나보자.

그림 · 글 · 사진 차지원 일러스트레이터

“우와, 엄청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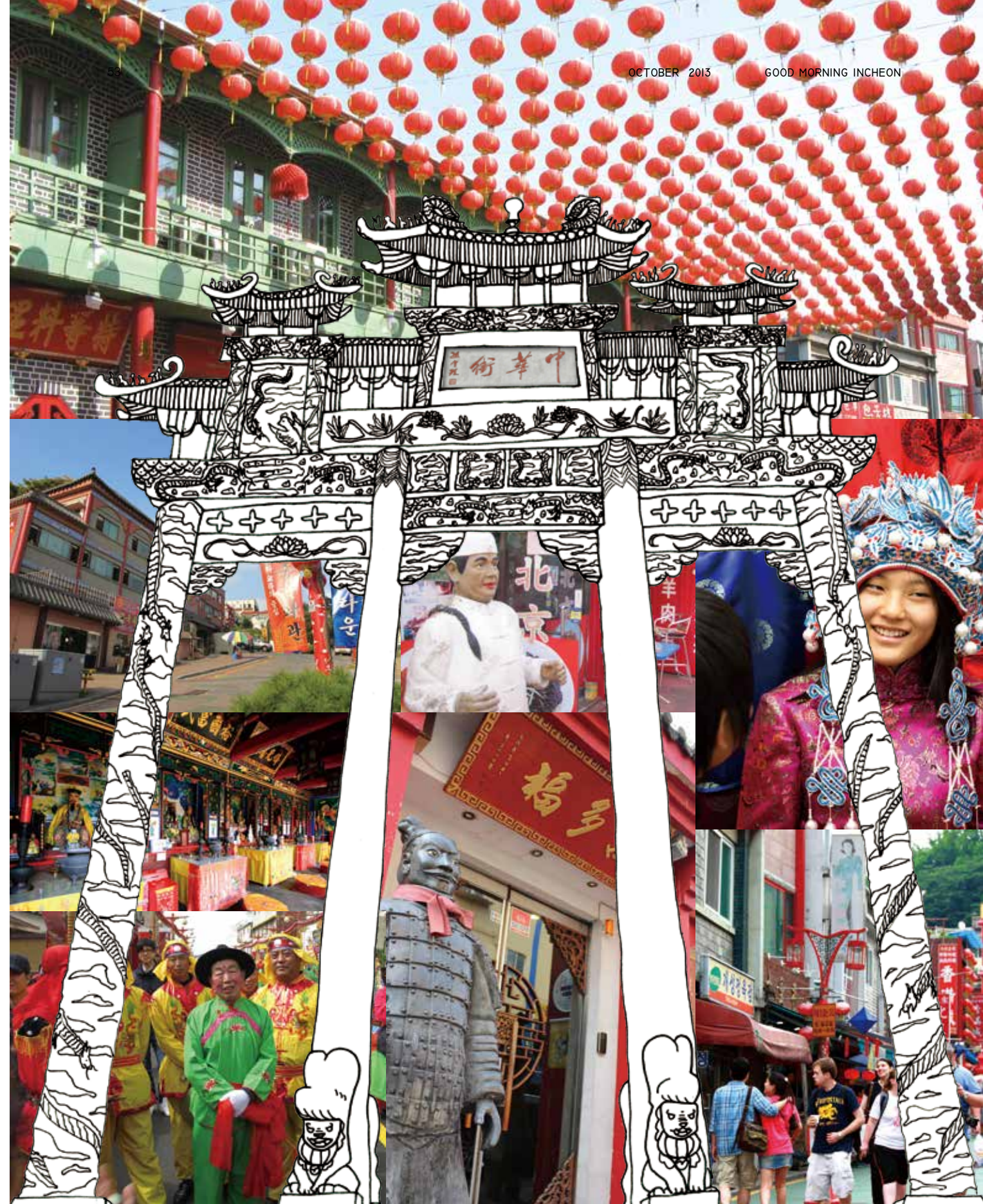
인천역으로 나와 차이나타운으로 들어가려면 큰 문을 지나야 한다. 이 커다란 돌문은 패루(牌樓)이다. 패루는 화교들이 정신적인 지주로 삼는 상징 조형물로 중국 동리 앞에 세우는 고유의 출입문이다. 오늘날에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다 세워져 있다고 한다. 패루는 지난 2000년 인천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가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다. 바다 건너 온 기술자가 중국에서 실어 나른 재료들로 멋지게 세웠다. 이 문 때문에 차이나타운이 환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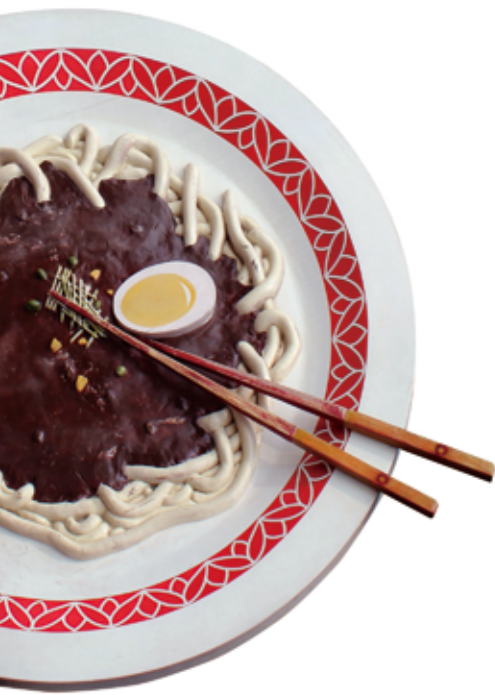
그런데 이 패루가 지난 2008년 거센 비바람에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중국산이라 그런가’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두 도시는 정성껏 패루를 다시 세웠다. 이번에는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는 하얀 돌패루를 세웠다. 이전 것 보다 더 웅장하고 남다른 스케일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럴 때 쓰는 4자 고사성어는 ‘전화위복(轉禍爲福)’.

패루를 지나자 작은 중국이 열렸다. 좌우로 붉게 물든 거리를 한발 한발 걷노라니 제일 먼저 달콤한 짜장면 냄새가 마중 나왔다.

“인천에서 최초로 짜장면이 만들어졌는지? 그 맛은 어떤 맛일까?”

1900년대 초 많은 중국인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황해를 건너 인천으로 몰려들었다. 그들 중에는 막노동꾼들이 상당수 끼어 있어 부두노동자로 생활했다. 이즈음에 탄생한 것이 짜장면이다. 그들은 붉은 춘장(중국 된장)에 국수를 비벼먹었다. 그것이 오늘날 우는 아이도 그치게 한다는 짜장면의 기원이다.





짜장면을 가장 먼저 판매했다던 ‘공화춘’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게 뭐야, 중국집이 아니네? 이미 공화춘은 오래전 문을 닫고 ‘짜장면박물관’이라는 새 간판을 달았다. 인천항 부두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산동식 짜장면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이 재현되었고 1930년대 당시 최고의 영빈관(迎賓館)이라 할 수 있는 공화춘 접객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짜장면이 만들어지던 공화춘의 주방에선 짜장면의 조리법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우리나라 짜장면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 중국집의 모습을 실감나게 살려 놓은 공간도 있다. 이밖에 짜장면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영상, 전시, 유물들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짜장면은 이제 중국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표 먹거리라는 게 실감났다.

연세 지긋한 분들은 차이나타운을 흔히 청관(淸館)이라고 부른다. 이는 ‘청나라 관청이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인천에 중국인들이 거주하게 된 것은 임오군란 때 청군을 따라 40여 명의 장사꾼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부터다. 집단으로 거주한 것은 우리나라 땅에서 인천이 제일 먼저다. 현재의 북성동 일대 구릉지 5천평에 청국 조계(租界)를 설치하고 청국영사관이 문을 열어 자치지역을 형성해 나갔다. 그 동네의 이름은 양국의 친선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선린동(善隣洞)이라고 불렀다.



‘가짜’ 음식을 눈으로만 보니 배에서 난리가 났다. 발길을 돌려 중국 음식점이 준비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뭐가 이렇게 많아? 짜장면만 있는 게 아니네?”

중국 사람들은 책상 빼고 다리 네 개 있는 모든 것으로 요리한다고 하던데, 음식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다. 일반 중국음식점에서는 볼 수 없는 양꼬치나 화덕만두는 관광객들의 최고 인기 간식거리. 그중에서도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갈빵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즐겨찾는다. 시식으로 나온 공갈빵에 반해 한 봉지, 두 봉지씩 팔려나가는 중이다.

커다란 길모습과는 다르게 속이 텅 비어있어 ‘공갈’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덕분에 만우절에 먹는 빵으로 서서히 등극하고 있다. 둥글게 부푼 표면은 딱딱해서 조금씩 부숴먹는다. 요즘 젊은층에서 인기인 독일과자 ‘슈니발렌’처럼 봉지 채 황황 두들겨 조각을 낸 후에 먹으면 편하다. 바삭함 속에 베인 적당한 단맛이 입맛을 당긴다.

차이나타운 화교 중산학교 바로 정문 앞에 복래춘(福來春)이 있다. 그 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면 주인장은 들은 체 만 체다. 그곳은 1920년대부터 4대째 공신빵(공갈빵)과 월빙(월병)을 굽고 있는 중국 전통과자점이다. 원래 공갈빵과 월병은 간식거리가 아닌 제삿상에 올리는 귀한 음식이다. 복래춘의 벽에는 월병의 기술을 전수한 가족들의 이름을 표시한 ‘월병 가계도’가 걸려 있다. 가게 곳곳에는 월병 무늬를 찍어낼 때 사용한 나무틀 등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도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복래춘은 처음에 공화춘(현 짜장면박물관) 근처에 있다가 50여 년 전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다. 복래춘의 과자 포장지에는 ‘百年傳統老店’이라고 적혀있다.



오물오물, 공갈뿔을 물고 길을 따라 올라가니 화려한 벽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말로만 듣던 '삼국지 벽화거리'다. 벽화를 따라 걸으면 삼국지의 장면들이 차례로 펼쳐진다. 남아라면 삼국지는 한번 일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신 이걸로 때울까. 등장인물도 많고 한자어가 많아 내용이 어려웠는데 그림이랑 같이 보니 훨씬 쉽고 재미도 있다.

삼국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학생들이 몰려나온다. 알고 보니 근처에 화교학교가 있단다. 청국 영사관이었던 자리에 학교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화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화교 학교지만 교정엔 대만의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가 휘날리고 대만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 1992년 8월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수교하고 중화민국(대만)과 단교했지만 화교 학교는 여전히 대만 정부의 소유라고 한다. 두 개의 중국과 두 개의 한국. 지나온 역사도 어쩔 이렇게 비슷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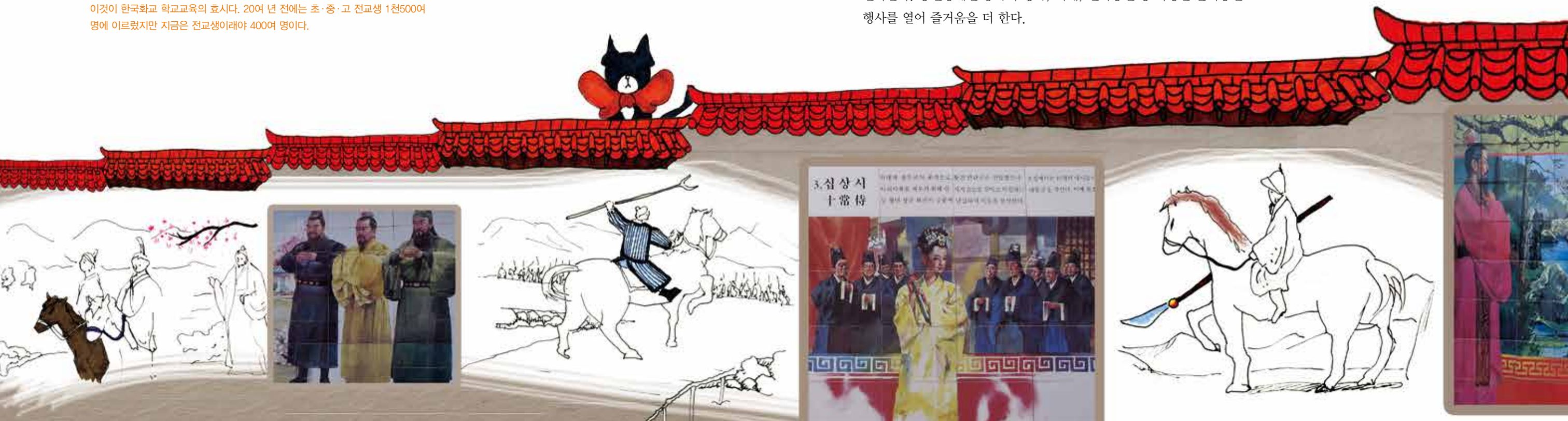
차이나타운에 있는 화교학교의 정식 명칭은 인천화교중산중·소학교(仁川華僑中山中·小學校)이다. 중산학교가 설립된 것은 1901년이다. 처음 학교 문을 열었을 때는 초등학교 과정인 소학교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국화교 학교교육의 효시다. 20여 년 전에는 초·중·고 전교생 1천500여 명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전교생이래야 400여 명이다.

여기저기 쉬지 않고 다녔더니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다.

“한중원?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지!”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둘러보니 원색으로 칠해진 정자와 연못, 그 위를 지나는 다리가 중국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한자로 ‘한중원(韓中園)’이라고 쓰여 있는 이곳은 ‘차이나타운 야외문화공간’으로 불리는 쉼터다. 작은 정원으로 꾸며놓은 이곳은 청나라 중·후반기 소주 지역 문인들의 정원 양식을 토대로 조성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하다. 발걸음을 재촉한다. 차이나타운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곳, 한중문화관으로 가야겠다. 거기라면 중국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한중문화관으로 가는 길에 오래된 주택 하나가 보인다. 2층의 개방형 발코니가 인상적인 청나라 양식의 주택인데, 6·25 전쟁 중 대부분이 소실되었지만 이 건물은 고스란히 남았다. 이 집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오래된 차이나타운을 다녀온 인증 굿샷이 된다.

주택을 지나 한중문화관에 다다른다. 여의주를 물고 금방이라도 승천할 듯 한 황금빛 용, 중국의 전통문양이 새겨진 외벽과 붉게 솟은 기둥. 외관에서부터 중국색이 강하게 전해진다. 한중문화관은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문화공간이다. 기획전시실에선 회화, 조각, 서예 등 주로 중국의 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중국의 우호도시로부터 기부 받은 문화재를 포함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공연장에선 중국의 경극, 기예, 민속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열어 즐거움을 더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숫자 ‘2’

글 장현식 인천기상대장



인천은 지리적으로 경기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천기상대장으로 부임한지 5개월,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맞이한 인천에서의 여름은 생각보다 무더웠다. 단지 체감하는 온도만 더웠던 것일까? 인천의 올여름 열대야일수는 19일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길었고, 여름철 평균기온은 24.4℃로 30년(1981년~2010년)간의 평균기온 평년값인 23.4℃도에 비해 무려 1도나 높았다. ‘에게~ 겨우 1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1911년~2010년) 지구의 평균기온이 0.75℃ 높아진 것을 생각하면 1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기후도 변하고 있다.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보통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하며, 기후변화는 이 평균적인 상태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기후가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도에 러시아에서는 130년 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1만5천명이 사망했고, 볼리비아에서는 -20도의 한파가 계속되어 물고기 600만 마리가 폐죽음을 당했다.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은 196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평균 1.8m가 높아졌으며, 심지어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섬은 침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열대

성 과일 재배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해파리 등 따뜻한 바닷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90%라고 한다. 더 이상 기후변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구가 아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처를 치유해 푸른 지구를 지켜야 한다. 지구를 지키는 방법! 멀리 있지 않다. 샤워시간을 1분만 줄여도 가구당 연간 4.3kg의 CO₂를 절감할 수 있고, 승용차 이용을 일주일에 하루만 줄여도 연간 445kg의 CO₂를 절감할 수 있다. 인천은 세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온도의 상한선 2도! 이 숫자를 지켜야 지구를 지킬 수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우리의 행동변화’가 필요할 때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21세기 말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배운 것과는 상당히 다른 지리를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미래의 지리부도는 현재와 상당히 다를 것이다.’ - 실베스트르 위예의 저서 <기후의 반란> 중에서

기후변화는 단지 현재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후손들이 맑고 파란 가을하늘을 못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후변화를 가볍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영사가 다시 돌아옵니다

미림이 돌아왔습니다.

은발(銀髮)들을 위해 은막(銀幕)에 다시 불을 켜습니다.

9년 만입니다.

위 사진은 2003년 9월에 찍은 길거리 극장게시판 사진입니다.

이젠 애관만 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미림의 영사가가 왕년의 시네마 키즈들의 꿈을

멋지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